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심한 기부?

소중한 진심

금액보다 중요한 건 마음!
소중한 진심을 전해주세요!

희망2023나눔캠페인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

기부상담 : 080-890-1212
ARS기부 : 050-700-1212
홈페이지 : https://chest.or.kr

사랑의열매 연말광고 모델 장도연

사랑의열매 ISSUE 188 2022 DECEMBER

이용안내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2022
12

나눔 의술로 진정한 인술을 펼치다

경기 사랑의열매 착한일터에 가입한 박희붕외과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심한 기부?

소중한 진심

금액보다 중요한 건 마음!
소중한 진심을 전해주세요!

희망2023나눔캠페인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

기부상담 : 080-890-1212
ARS기부 : 050-700-1212
홈페이지 : https://chest.or.kr

사랑의열매 연말광고 모델 장도연

사랑의열매 ISSUE 188 2022 DECEMBER

사랑의열매

2022
12

지역사회와 행복한 동행

농민과 지역민의 곁에서
힘이 되는 경북농협의
나눔 활동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심한 기부?

소중한 진심

금액보다 중요한 건 마음!
소중한 진심을 전해주세요!

희망2023나눔캠페인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

기부상담 : 080-890-1212
ARS기부 : 050-700-1212
홈페이지 : https://chest.or.kr

사랑의열매 연말광고 모델 장도연

사랑의열매 ISSUE 188 2022 DECEMBER

사랑의열매

2022
12

나눔을 선물하는 아기산타를 아시나요?

8년째 원생들과 함께
사랑의 모금행사
이어온 태안어린이집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심한 기부?

소중한 진심

금액보다 중요한 건 마음!
소중한 진심을 전해주세요!

희망2023나눔캠페인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

기부상담 : 080-890-1212
ARS기부 : 050-700-1212
홈페이지 : https://chest.or.kr

사랑의열매 연말광고 모델 장도연

사랑의열매 ISSUE 188 2022 DECEMBER

사랑의열매

2022
12

33인의 따뜻함이 만들어낸 여수 나눔 명소

전남 1호 나눔거리로 선포된
종포해양공원&낭만포차거리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나눔태그

“어떤 사랑의열매를 만나셨나요?”

deepin_young

지인이 알려준 덕에 전부터 하고 싶던 줍깅에 도전했다! 좁은 등산로에는 오는 길에 널려 있던 쓰레기에 비하면 많지 않았지만, 오래되어 흙 속에 단단히 묻힌 쓰레기가 꽤 있었다.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에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제대로 분리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kim.ju.han

#사랑의열매 추운 겨울
사랑이 필요합니다.
#기부
#봉사활동
#봉사
#사랑

0lufina0

다섯 살 아이가 용돈을 모아 불우 이웃 돕기 성금을 내고 왔어요. 그 누구도 다섯 살이 어떻게 용돈을 받아 쓰냐고 긍정적으로 얘기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용돈교육은처음이지 작가님의 팁대로 일주일 2,000원 용돈을 받으면 갖고 싶은 거나 사고 싶은 걸 사도록 모으는 저금통, 다른 사람을 돕는 저금통, 은행에 저축하는 저금통에 나눠 저금하고, 용돈 가방에 남은 용돈을 넣고 과자도 사 먹고 한답니다. 오늘 불우 이웃 돕기 성금을 냈더니 복지사님께서 다른 사람 돕는 데 힘을 보태줘 고맙다고 홍보용 선물을 주시네요. 으쓱! 우리 또 열심히 모아서 다른 사람 도와보자! 혼자만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도 세상을 볼 수 있는 멋진 아이로 자라렴. #5살용돈 #멋진아들 #불우이웃돕기 #신암주민센터 #친절한복지사님 #사랑의열매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ARS
060-700-1212
(한 통화에 3천 원)

문자
#9004
(한 통화에 2천 원)

QR 기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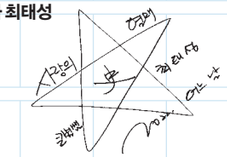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홍보대사 나눔 엽서

“제가 그러했듯 정말 평범한 사람도 나눌 수 있답니다”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최태성



지난 3월 한국사 강사 최태성 님이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평소 교재 인세 일부와 유튜브 수익금 등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해온 최태성 강사님은
함께 공부하는 ‘별님’들과 고민한 끝에 사랑의열매와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나눔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최태성 홍보대사님은 이제 나눔을 실천하는 것에서 나아가
누구나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열매

vol. 188 2022. 12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위 왼쪽부터) 전기원 원장, 유선형 원장
(아래 왼쪽부터) 고승상 원장,
박희붕 대표원장, 이강영 원장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12월 / 통권 188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MIX
From responsible sources
FSC® C005413
FSC
www.fsc.org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04
희망2023나눔캠페인 스토리 ❶
함께하는 나눔으로
준비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08
모두의 나눔
청년의 홀로서기를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14
희망으로 채우는 세상
사랑의열매, 2022 모두다토론회 개최

18
내 인생의 한마디
대구 모자(母子) 아너, (주)우성환경
최병일 대표와 故 황옥 여사

22
매슐랭
맛에 진심, 경남 맛집

26
착한기업
국내 최대 스포츠용품 유통 전문 기업
(주)대연

30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8년째 이웃 돕기 실천해온
전주개인택시 진안군향우회

32
나눔공모전
제10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시상식

34
나눔 이슈
아름다운 당신, 올해도 고맙습니다

36
크라우드펀딩

37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경기·경기북부·강원·서울·인천

48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50
전국 지회 뉴스

60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

vol. 188 2022. 12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왼쪽부터) NH농협 경북지역본부 금동명
본부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김종필 경북지역위원장,
NH농협 경북영업본부 윤성훈 본부장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12월 / 통권 188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MIX
From responsible sources
FSC® C005413
www.fsc.org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04
희망2023나눔캠페인 스토리 ❶
함께하는 나눔으로
준비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08
모두의 나눔
청년의 홀로서기를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14
희망으로 채우는 세상
사랑의열매, 2022 모두다토론회 개최

18
내 인생의 한마디
대구 모자(母子) 아너, (주)우성환경
최병일 대표와 故 황옥 여사

22
매슐랭
맛에 진심, 경남 맛집

26
착한기업
국내 최대 스포츠용품 유통 전문 기업
(주)대연

30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8년째 이웃 돕기 실천해온
전주개인택시 진안군향우회

32
나눔공모전
제10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시상식

34
나눔 이슈
아름다운 당신, 올해도 고맙습니다

36
크라우드펀딩

37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경북·경남·부산·대구·울산

48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50
전국 지회 뉴스

60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

vol. 188 2022. 12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태안어린이집 신정미 선생님, 조서아, 이지아,
서민채, 모란, 조하엘 어린이 (왼쪽부터)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12월 / 통권 188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MIX
From responsible sources
FSC® C005413
FSC www.fsc.org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04
희망2023나눔캠페인 스토리 ❶
함께하는 나눔으로
준비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08
모두의 나눔
청년의 홀로서기를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14
희망으로 채우는 세상
사랑의열매, 2022 모두다토론회 개최

18
내 인생의 한마디
대구 모자(母子) 아너, (주)우성환경
최병일 대표와 故 황옥 여사

22
매슐랭
맛에 진심, 경남 맛집

26
착한기업
국내 최대 스포츠용품 유통 전문 기업
(주)대연

30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8년째 이웃 돕기 실천해온
전주개인택시 진안군향우회

32
나눔공모전
제10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시상식

34
나눔 이슈
아름다운 당신, 올해도 고맙습니다

36
크라우드펀딩

37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충남·세종·대전·충북

48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50
전국 지회 뉴스

60
FUN한 나눔

사랑의열매

vol. 188 2022. 12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왼쪽부터) 낭만포차16번 여수로포차 백용식 대표,
동문동주민자치위원장이자 오성회관 손준자 대표,
달달해낭만포차 김점엽 대표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12월 / 통권 188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MIX
From responsible sources
FSC® C005413
FSC
www.fsc.org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04
희망2023나눔캠페인 스토리 ❶
함께하는 나눔으로
준비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08
모두의 나눔
청년의 홀로서기를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14
희망으로 채우는 세상
사랑의열매, 2022 모두다토론회 개최

18
내 인생의 한마디
대구 모자(母子) 아너, (주)우성환경
최병일 대표와 故 황옥 여사

22
매슐랭
맛에 진심, 경남 맛집

26
착한기업
국내 최대 스포츠용품 유통 전문 기업
(주)대연

30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8년째 이웃 돕기 실천해온
전주개인택시 진안군향우회

32
나눔공모전
제10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시상식

34
나눔 이슈
아름다운 당신, 올해도 고맙습니다

36
크라우드펀딩

37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전남·제주·광주·전북

48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50
전국 지회 뉴스

60
FUN한 나눔

희망2023나눔캠페인
드디어 시작

함께하는 나눔으로 준비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올해 우리 사회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전, 기후변화, 경제 위기 등 다양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사랑의열매는 희망2023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나눔 저력을 보여주길,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길 기대한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이승재

희망2023나눔캠페인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

다 함께 위기 극복,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희망2023나눔캠페인은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이어진다. 이번 캠페인 나눔 목표는 전년 대비 340억 원을 증액한 4,040억 원이다.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사회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더 큰 희망이 필요하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이번 캠페인의 슬로건을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로 결정했다. 나눔을 실천해 우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았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지역사회 안전 지원 ●위기 가정 긴급 지원 ●사회적 돌봄 지원 ●교육 및 자립 지원까지 사회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디지털 세상에서도 만나요!

색다른 나눔으로 가득한 희망2023나눔캠페인

사랑의열매×체리랜드 지난해 캠페인에서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활용해 새로운 기부 문화를 선보인 바 있다. 올해 역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광화문광장을 배경으로 실제와 거의 똑같이 구현한 사랑의온도탑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 카페, 스케이트장, 포토 존, 상담실 등 체험형 놀이 공간도 마련했다. 또 크리에이터 숍에서 3젬(약 320원)에 판매하는 아바타용 후디 티셔츠를 구입할 경우 해당 금액은 모두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기부돼 쉽고 간편하게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

VR기부체험관 사랑의열매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VR를 통한 기부체험관을 선보인다. 온라인 아트 전시 플랫폼 갤러리360에 마련된 기부체험관에는 희망2023나눔캠페인과 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고, 제10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의 수상 작품도 전시되어 있다. 작품 관람과 동시에 기부 참여가 가능하다.

사랑의열매 NFT 희망2023나눔캠페인 기간 중 신규로 정기 기부를 신청한 기부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사랑의열매 NFT(기부 증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매달 작지만 큰 사랑을 실천

소중한 진심을 전한 따뜻한 사람들

사랑의열매에는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이 있다. 매년 정기 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이도 늘어나는 추세다. 매달 소중한 진심을 전하며 큰 사랑을 만드는 가슴 따뜻한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출처** 중도일보 **취재** 한성일 기자

착한가게

가수 테이의 테이스티버거

가수 테이가 자신이 운영하는 수제 햄버거집 '테이스티버거' 매출액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가게에 가입했다. 그는 사랑의열매 유튜브 채널 웹 예능 〈매슐랭 가이드〉에서 MC를 맡으며 전국 착한가게의 맛을 알렸다. 〈매슐랭 가이드〉를 촬영하며 사장님들의 사연과 기부 의지에 크게 감동한 그는 착한가게 가입을 결정했다. 테이는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가게를 운영해 언젠가 사랑의열매 웹 예능에 착한가게 사장님으로 다시 출연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착한가게

대를 이어 착한가게 가입, 대전제일화방문구

대전 미술인의 버팀목이 되어온 미술 재료 전문점인 '대전제일화방문구'. 이곳의 제1대 대표인 김영기 대표는 2012년 10월 착한가게에 가입해 10년 동안 기부를 이어왔다. 2019년에는 아내 조영순 씨와 나눔리더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대전제일화방문구를 승계받은 아들 김남일 대표 역시 부모님 뒤를 이어 나눔에 동참했다. 대를 이어 착한가게에 가입한 것. 김영기 제1대 대표는 "나눔이 대를 잇는 풍토가 널리 널리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아들의 착한가게 가입을 반겼다.

착한가정

착한가게에 이어 착한가정까지, 권해진·김성대 부부와 자녀

'화창할인마트'를 운영하는 권해진·김성대 부부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올해 초 착한가게에 가입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가족과 함께 나눔에 동참하고자 권해진·김성대 부부와 자녀 김다인·김나경 이름으로 정기 기부를 약속했다. 대구 착한가정 300호로 가입하며, 지역사회의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일조한 것. 가족의 성금은 대구 서구 원대동에 거주하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생계비, 밑반찬 및 집수리비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나눔리더

LG유플러스 대표 캐릭터 '무너'

MOONO

나눔리더스클럽

무너 NFT 구매자(홀더랭이)

10월 20일 LG유플러스의 대표 캐릭터 무너(MOONO)가 나눔리더로 가입했다. 무너는 '무너지지 않는 사회 초년생' 콘셉트의 캐릭터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 중이다. 또한 미디어 채널에서 팬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사회 초년생과 MZ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너와 함께 무너 NFT(대체 불가 토큰) 구매자이자 무너의 팬 모임인 홀더랭이도 기부에 동참해 나눔리더스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무너와 홀더랭이는 무너 NFT 발행 수익금 총 2,500만 원을 기부했고, 해당 성금은 비영리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청년 단체 등 청년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나눔리더스클럽

무너 '찐 팬'의 찐한 나눔, 무너41.com

11월 21일에는 무너의 '찐 팬'들이 모인 자체 커뮤니티 무너41.com 회원들이 1,000만 원을 기부하며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했다. 무너가 나눔리더가 된 지 딱 한 달 만이다. 이번 성금은 무너41.com에서 무너 코인을 기부하면 LG유플러스가 현금 10배로 환산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조성했다. 기부금은 가족 돌봄 청년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적·정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한다.

청년의 홀로서기를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어쩌다 어른이 되어버린 청년이 있다. 바로 보호종료아동·청년이다. 팍팍한 세상살이에 막막함을 느끼는 그들의 손을 잡아줄 어른이 절실하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전국 나눔 협력 기관과 함께 청년의 홀로서기가 외롭지 않도록 든든한 지원을 이어가고자 한다.

글 이선희 **사진** 각 나눔 기관 **일러스트** 조성흠

1

보호종료청년의 자립 커뮤니티 운영 및 장학금 지원 허들링 커뮤니티

소이프스튜디오는 보육 시설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2017년에 설립했다. 그러던 중 설립 이전부터 3년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된 보호종료청년 3명과 모임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현재 청년 30명이 참여하는 허들링 커뮤니티로 발전했다. 단순한 커뮤니티를 넘어 자립 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한편, 2019년부터는 어렵게 학업을 유지하는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청년들은 점차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참여자 간 끈끈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개별 면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심리 상담, 주거 지원 등 참여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올해는 푸르덴셜생명(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의 후원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한층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1 커뮤니티 활동의 일환으로 참여자들이 함께 떠난 여름 캠프 **2** 청년들이 함께한 요리 대회 **3** 퍼스널 컬러 강의에 참석한 모습

2

3

작품을 만드는 데 집중한 목공 과정 참여자들

1 바리스타 과정을 수료한 참여자들
2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방역 과정을 운영 중이다.

쉼터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전문 기술 교육 및 일자리 공간 창출 사업 카페와와

위기 청소년이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사회적 편견 등의 이유로 이들의 고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성남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서는 쉼터 안팎 청소년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공간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위기 청소년 특화 자활 사업장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나눔과꿈 지원을 받으면서 장기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졌다. 참여자의 적성에 따라 목공, 가죽공예, 방역, 바리스타 교육에 참여해 직업적 전문성을 갖추고 나아가 안정적으로 자립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후에는 성남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가 운영하는 '카페와와'에서 일하며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목공과 가죽공예 참여자가 만든 제품을 크라우드펀딩으로 판매해 지역사회의 자립 사업에 참여하고, 참여자는 재능 기부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받은 도움을 되돌려주는 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Mini Interview

성남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김은녕 소장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4개로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기 청소년 중 상당수는 미용이나 네일 아트를 배웁니다. 이 두 분야 외에도 다른 분야 교육을 진행해 참여자의 직업 선택 폭을 넓혀주고 싶었습니다. 목공과 가죽공예는 저희 쉼터에서 오랫동안 진행해온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아 이번에도 포함했습니다. 카페와와가 오픈하면서 바리스타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현장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요. 방역은 코로나19 시대에 부각될 직업으로 전문가 의견을 받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사업과 차별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카페와와라는 공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업장과 달리 이곳에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참여자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합니다. 한마디로 참여자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카페로 스카우트되어 바리스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참여자부터 이곳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한 참여자까지…. 이 모든 변화가 카페와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나눔과꿈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나눔과꿈 지원 덕분에 참여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자립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배움에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실제 상황을 경험하며 진정한 사회인이 되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요? 참여자들과 지역사회를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카페와와, 크라우드펀딩으로 지역사회가 참여자들의 자립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일부러 카페와와에서 주문하려고 먼 길을 돌아오는 분들, 음료나 빵 등 메뉴에 대한 피드백은 물론 칭찬과 격려도 아낌없이 해주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도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도움을 주며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배웁니다.

보호종료아동 및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경험(인턴십) 프로그램
아름다운 함께 서기

청년의 취업 수요는 높은 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지난해 한국조선해양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홍보, 인사 업무, 매장 운영 지원, 모바일 사업, 업사이클링 등 아름다운가게 내 다양한 직군을 경험해보며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실제 현장을 경험하며 업무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한 것. 직장 생활 기본 교육, 멘토 강의, 경제 교육, 취업 컨설팅 등 취업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인턴들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보호종료청년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돕고자 했다.

1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키퍼에서 진행한 인생 멘토 특강 **2** 비즈니스 소통 및 예절을 배우는 역량 강화 교육

Mini Interview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이예도 간사

한국조선해양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진행한 인턴십이 올해 5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사업 성과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 참여자가 "인턴십에 참여하면서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이 세상엔 나를 지켜봐주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반응이 저희가 인턴십을 진행하는 진정한 목적이며 성과 아닐까요. 인턴별로 담당하는 간사님이 계시는데요, 상사보다는 멘토에 가깝습니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관계 맺음을 통해 정서적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중요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기억에 남는 사업 참여자가 있나요? 인턴십 이후에도 아름다운가게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분이 계셨는데요, 당시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턴십이 끝나가는 시점에 그분이 일하던 매장에 결원이 생긴 덕분에 그분이 계속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 간절히 원한다면 주변에서 도와준다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는데, 인턴십 이전과 비교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의 미래를 잘 만들어나가는 것 같아 저희도 뿌듯하고, 감사할 따름이지요.

기존 사업과 차별화를 이룬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회 경험을 쌓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보호종료청년의 취업 지원 사업이 대상자를 기업으로 배치해 그곳에서 인턴십 혹은 일 경험을 쌓게 했다면, 저희는 대상자 모집부터 인턴십 수료까지 모두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개개인의 맞춤별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것은 물론, 아름다운가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조선해양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름다운가게에서 오랫동안 보호종료청년을 지원해왔으나 해당 사업을 맡은 부서 외에 타 부서에서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예산을 확보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었고, 내부적으로 이 사업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조직 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지요.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취업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에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참여자들

사랑의열매, 2022 모두다토론회 개최

청년, 모두의 자립

보호종료아동, 발달장애 청년, 탈가정 청년 등 사회 이슈로 부각된 청년들의 자립 준비를 모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자,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글 강은진 사진 이승재

솔루션 찾는 소통의 장

2022 사랑의열매 '모두다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11월 18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는 '청년, 모두의 자립'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별 기관 및 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솔루션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탈가정 청년 및 보호종료아동, 발달장애 청년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현실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첫 번째 사례 발표자로 나선 예비 사회적 기업 282북스 강미선 대표는 '궤도이탈 청년독립선언' 사업을 소개하며 아직은 조금 생소한 탈가정 청년에 대해 이야기했다. 탈가정 청년이란 가정 내 학대와 폭력, 성폭력, 경제적 착취 등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 단절한 이들이다. 강미선 대표는 "탈가정 청년이란 단어는 낯설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낯설지 않다"면서, "가족 간의 문제이고,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탈가정 청년은 제대로 된 지원은 고사하고 그 수치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심각한 현실을 알렸다. 이어 "탈가정 청년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이들을 가족 형태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82북스의 궤도이탈 청년독립선언 사업은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청청모 청년투자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놓인 청년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강원도 아동 자립 지원 시설 R.A.U.M(강원희망디딤돌센터) 이재용 원장은 "보호 대상 아동 · 청년의 연령이 만 18세에서 24세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리였다. 한 가지만 말하고 싶다. 청년들의 문제는 우리 사회문제이고 기성세대의 문제다. 그러니 개인의 문제로 스스로를 탓하며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청청모 강효미 (주)퍼스트룩 공동대표

로 늘어나는 등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들의 자립을 위한 대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대출을 받아 주거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자립 청소년은 '빚'으로 인생을 시작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어떻게 6년 만에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며 최대 10년에서 15년까지 임대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은 발달장애 청년의 자립이었다. 지속 가능한 일터로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푸르메소셜팜 사업을 진행중인 푸르메재단 박세황 기획팀장은 실제 사업 성과를 소개하며 발달장애 청년의 일자리 모델을 제시했다. 박세황 팀장은 "일반 기업의 제품과 비교해도 경쟁력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과 일자리를 목표로 한다"면서, "발달장애인이 만든 것이니 사달라는 식의 접근은 지속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일반 근로자보다 부족한 점은 분명 있지만, 발달장애 청년도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적절한 경제적 소득을 보상받아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권리를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1 성수 KT&G 상상플래닛에서 개최된 2022 모두다토론회
2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

사회 · 경제적 자립 도와야

모두다토론회는 1부 사례 발표 후 본격적인 토론이 어어졌다. 토론은 앞서 사례를 발표한 기관 대표와 실무자를 비롯해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청청모 기부자 대표 강효미 (주)퍼스트룩 공동대표와 자립준비청년협회 주우진 대표, 푸르메소셜팜 사업 실무자 최보갑 간사가 참여자로 합류했다. 강효미 대표는 "청청모가 지원하고 있는 탈가정 청년 사례 발표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다"면서, "그럼에도 토론회를 통해 기댈 곳 없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 사회에서 스스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새삼 가늠해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주우진 대표는 자신도 보호종료아동으로 독립한 청년이라고 소개하며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사회적 자립까지 목표로 한다"면서, "시설에서 자란 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탈가정 청년, 보호종료아동, 발달장애 청년의 자립 문제는 2022년에 새롭게 부각된 사회 이슈였던 만큼 토론회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사랑의열매의 다양한 청년 지원 사례의 주인공들과 청년 기부자들을 모시고 해결의 실타래를 풀어보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대표적 나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열매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굴해 지원한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및 관계자들이 지원 방안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두다토론회'를 2019년부터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

SPECIAL INTERVIEW

"현실적 자립이 가능한 지원 확대되길"

강원도 아동 자립 지원 시설 R.A.U.M(강원희망디딤돌센터) 이재용 원장

토론회를 통해 보호종료아동 사례를 소개해주셨다. 정말 뜻깊은 자리였다. 보호종료아동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논의한 적이 없었다. 이런 자리를 계기로 복지시설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삼성희망디딤돌센터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준비를 돕는 곳이다. 삼성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2015년부터 시작했다. 이 사업 이전에는 사실 강원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 등에서 만 18세가 되어 퇴소하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었다.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센터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토론회뿐 아니라 독자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며칠 전 한 아이에게서 "원장님, 저 수중에 4,000원뿐이에요. 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는 전화를 받았다. 시설에서 부모가 아닌 직원들에게 생활 교육부터 성교육, 대피 훈련까지 받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도움의 대상으로만 대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지원들을 확대해주었으면 좋겠다.

대구 모자(母子) 아너, 178호 (주)우성환경 최병일 대표와 209호 故 황옥 여사

“아들의 이웃사랑이 천국에 계신 어머님께 닿았으면 합니다”

대구 178호 회원인 (주)우성환경 최병일 대표가 어머니 황옥 여사를 추모하며 어머니를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시켰다. 대구 209호 아너가 된 故 황옥 여사는 “이웃을 사랑하길 내 몸같이 하라”는 가르침을 남긴 위대한 어머니였다. 글 강보라 사진 박충렬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돈 잘 벌고 출세한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사는지 등 뒤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의 인생관과 철학, 삶의 태도는 자식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기 마련이다. 어머니 황옥 여사와 아들 최병일 대표처럼 말이다. 황옥 여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눔의 끈을 놓지 않은 따뜻한 사람이었다. 풍족하던 경북 의성 양반집에서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세가 기울었지만, 배고픈 이웃과 밥을 나누고 귀한 것은 아껴두었다 대접할 정도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 나눔 천사였다.

65세 황혼의 기부 플렉스

최병일 대표는 힘들게 살았던 어머니의 지난 세월을 기억한다. 가난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5남매를 키워낸 강단과 베푸는 삶으로 이웃을 보듬은 따뜻함이 인생의 지침으로 남았다.

“평소 이웃에게 베풀면서 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들의 기부 소식을 들으면 천국에 계신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아서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모자(母子) 아너 가입 외에 65세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 이익의 100%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하며 황혼의 기부 플렉스를 실천하고 있다.

“맨주먹으로 시작한 사업이라 회사 매입으로 인한 부채가 많았어요. 매입 자금 부채 상환을 종료하는 만 65세 이후부터는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유가 많겠다고 생각하지만, 최병일 대표의 기부는 계획적인 정기적금과 같다.

“돈이 많아서 일시납으로 1억이나 2억이라는 목돈을 턱턱 내는 게 아니에요.(웃음) 기부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100만~200만 원을 납부하는 방식이죠. A 회사의 이익금이 4~8년 정도 충분히 발생한다고 판단했을 때 기부를 시작합니다.”

지역사회 이웃을 위해 황혼의 기부 플렉스를 실천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과 바다를 이루듯,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나눔의 큰 바다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인색한 모습을 보인다. 10년이 넘은 차량도 문제없다며 5년만 더 타자고 마음먹었을 정도다.

"지금 차를 5년만 더 타서 아끼면 1억 원 기부를 한 번 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몸이 즐거운 것보다 마음이 즐거운 쪽을 택하기로 했습니다.(웃음)"

전문 영역에서 실천하는 나눔과 기부

사랑의열매를 통해 나눔을 실천 중인 최병일 대표는 기부가 전문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마음만으로는 도울 수 없다'는 깨달음도 얻었다.

"한번은 구청에 전화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쌀이 귀할 때여서 쌀 두 포대를 짊어지고 갔는데, 마당에 쌀을 내려놓기 무섭게 욕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러 가서 욕을 먹으니 정말 어안이 벙벙했죠."

사정을 알고 보니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해 차상위 계층이 된 것에 대한 항의를 최병일 대표에게 한 것이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이미용 봉사나 청소 봉사를 계획하기도 했지만, 도리어 현실의 벽을 더 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눔과 봉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일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렵게 찾아갔더니 고마워하지도 않았고, 일방적인 도움이 때로는 민폐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뒤로는 전문가인 사랑의열매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의 가장 큰 자산으로 남은 성실과 신뢰

최병일 대표의 집안은 의성에서도 소문난 양반집이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어 중학교 때부터 처절하게 가난을 겪었다. 돈이 없어 배도 곯고 공부도 중단해야 했지만, 최병일 대표만의 근면과 성실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갔다.

"입학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포기하게 됐을 때는 고시 학원에 무작정 편지를 썼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인데, 청소라도 하면서 검정고시 자격증을 따고 싶다고요."

그렇게 고비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었고, 도움의 손길에는 성실과 신뢰로 보답했다.

"전문 경영인으로 연봉을 받을 때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했어요. 경영 악화로 모두 손 놓은 기업을 여럿 살려내며 동종 업계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았죠. 나중에는 '최 사장이 오너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돕겠다고 나서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잡을 때마다 '나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했다고. 이제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약정기부를 시작했다. 고향사랑 실천을 위해 재대구경북도민향토봉사회 회장으로 봉사하며 서구인재육성재단에 1억 원, 대구시

전체 복지사업에 1억 원, 수성구와 남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각각 1억 원, 여기에 경상북도범도민 이웃사랑행복나눔성금 1억 원까지 도합 5억 원의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최병일 대표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사회에서 누군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바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눔과 기부로 만드는 사회적 안전망

최병일 대표는 자신의 나눔이 빈부 격차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유럽의 경우에는 15세기부터 이어진 부자들이라 나눔에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고, 성숙한 기부 문화로 일상에서도 나눔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0~40년이라는 단시간의 성장으로 현격한 빈부 격차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저는 기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시작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작은 나눔이 모여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하기를 소망한다.

"가끔 사업 실패를 비관한 부모가 자녀와 동반 자살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극한 상황에 몰리더라도 누군가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롭게 단장한 대구 사랑의열매 명예의 전당에는 "부유한 사람을 격려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라. 그러면 물질의 위대함과 윤리적 위대함을 모두 얻게 될 것이다"라는 문구가 나눔의 경전처럼 새겨져 있다. 나눔으로 촘촘하게 엮인 사회적 안전망은 물질의 위대함과 윤리적 위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안겨줄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 '우리'가 되는 사회는 최병일 대표가 꿈꾸는 내일의 모습이기도 하다.

제대로 된 음식만 고집하는 착한가게

맛에 진심, 경남 맛집

바다가 가까워서일까, 산이 둘러싸고 있어서일까, 들이 넓어서일까? 경남에서 만나는 음식은 재료부터 제대로였다. 그러니 맛이야 말해 무엇하리. 나눔으로 착한 맛까지 더해진 경남이다.

글 강은진 **사진**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맛있는 힐링
카페 엘리브

경남 창원시 성산구 귀산로 19 055-274-7003
매일 10:30~24:00

엘리브(ELLIB)는 독일어로 '인기 있는, 호평받는'의 의미가 있는 'Beliebt'의 변형어다. 맛이면 맛, 멋이면 멋, 손님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겠다는 뜻이다.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창원 귀산동 카페 거리에 자리한 이곳은 평화로운 바다와 산을 바라보며 휴식할 수 있다. 대형 카페라 모든 공간이 넓고 시원하다. 통유리로 쏟아지는 볕을 즐기기 좋은 내부 공간부터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테라스에 루프톱까지 맘에 드는 곳에 자리 잡고 즐기면 그만이다.

전문 바리스타가 만드는 커피도 수준급으로, 흑임자의 고소함이 살아 있는 엘리브 라테가 시그너처 메뉴다. 흡사 칵테일 같은 갤럭시 에이드도 찾는 이가 많다. 가벼운 식사 대용으로 좋은 슈프림 샐러드와 치아바타도 훌륭하다.

중식, 어디까지 먹어봤니?
푸름각

경남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58-1 055-546-5557
화~일요일 11:00~21:00(브레이크타임 15:00~17:00, 매주 월요일 정기 휴무)

진해에서 가장 유명한 중식당이다. 각종 방송에 소개된 것은 물론, 블루리본도 무려 10년 연속 받고 있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무엇을 주문해도 기본기 탄탄한 맛을 보장한다. 그중 가장 유명한 건 '탕수육찜'으로, 대한민국을 통틀어 푸름각에만 있는 메뉴일 듯. 불 향 가득 볶아낸 숙주와 각종 채소를 바삭하게 튀긴 탕수육 고기 위에 한가득 올려낸다. 아귀찜이 연상되는 비주얼이다. 불 향 진한 양념은 보자마자 군침이 돈다. 찍먹, 부먹 고민할 필요 없다. 볶은 채소를 올렸기에 마지막까지 바삭하게 즐길 수 있다. 2002 월드컵을 기념해 만든 히딩크쟁반짬뽕 또한 현지인 추천 메뉴다. 넓은 쟁반에 자작한 국물과 함께 나오는 히딩크쟁반짬뽕은 국물 짬뽕과 볶음 짬뽕을 동시에 즐기는 듯하다. 이 밖에도 달콤하고 상큼한 라임크림새우,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양장피 등 푸름각의 모든 메뉴는 조금 특별하다. 맛있는 중식 좀 먹어보고 싶은 이라면 푸름각에 꼭 가보자.

삼천포에 갔다면
귀빈식당해물탕

경남 사천시 수남길 93-11 055-832-6662
매일 10:00~21:00(브레이크타임 15:00~17:00, 첫째·셋째 주 월요일 정기 휴무)

삼천포로 빠지지 말라니, 안 될 말이다. 최고의 해물탕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천포로 빠져야 한다. 쓰촨의 맛 10선에 선정된 쓰촨 제일의 해물탕이 삼천포에 있기 때문. 2003년 문을 연 이래 20년간 자리를 지킨 해물탕과 해물찜 전문점, 바로 귀빈식당해물탕이다. 꿈틀대는 낙지는 기본에 전복, 꽃게, 참소라, 가리비, 대하, 홍합 등 싱싱한 해물이 어찌나 푸짐한지 가성비 좋다는 후기가 넘쳐난다. 국물은 얼큰함 그 자체다. 깔끔하게 담아내는 밑반찬도 상을 꽉 채워 한 상 제대로 대접받는 기분이다. 실한 게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 있는 꽃게탕, 매콤 달콤 양념 맛이 입맛을 돋우는 낙지볶음, 제대로 쳐낸 낙지탕탕이까지 식사 메뉴와 사이드 메뉴도 훌륭하다. 바다 내음 가득한 삼천포 항구 마을에서 만나는 진짜 해물탕, 지금 삼천포로 빠지자!

국내 최대 스포츠용품 유통 전문 기업 (주)대연

WE:DO, 달리고 나누며 성장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나이키·조던 매장을 운영하는 스포츠용품 유통 전문 기업 (주)대연은 기부의 러닝메이트로 일컬어진다.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운동화 후원은 물론, 달리는 거리만큼 기부가 늘어나는 '달GO나' 챌린지로 나눔 분야에 건강 바람을 일으켜 눈길을 끈다. 글 강보라 사진 (주)대연, 사랑의열매

자전거 지원과 라이딩 교육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자전거 멘토링 사업

대연은 부천시의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해 나이키 스포츠용품 기부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주)대연은 1995년 1호 매장인 경기 부천점에서 시작해 국내 유일의 나이키 콘셉트 매장 '조던 서울'과 '나이키 스타일 홍대'를 포함해 전국 나이키 매장 약 70개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스포츠 유통 전문 기업이다. 대연의 기부는 주종목인 스포츠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스포츠 꿈나무 육성 지원을 비롯해 이웃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드는 다양한 사회 공헌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사랑의열매의 나눔명문기업 160호로 가입하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김대호 대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희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에너지를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눔명문기업으로 쾌척한 기부금 1억 원은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비롯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긍정의 Just do it!

코로나19로 청소년의 일상 또한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 장기간의 비대면 활동으로 몸과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 이런 이유로 대연의 나눔명문기업 성금이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으로 향했다.

'빛나는 꿈 키움'은 예체능 분야에 재능을 가진 청소년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 장학 사업이다. 소득 격차가 꿈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약 계층 청소년에게 교육비, 대회 참가비, 훈련비, 재료비 등을 꾸준히 지원하며 격려하고 있다. 자전거 멘토링 '따르릉과 함께 마음 근육 up!' 사업은 내적·외적 우울감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회복을 위해 기획했다. 오랜 실내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친 아동들에게 자전거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안전 수칙과 관리법까지 교육해 건강한 자전거 타기를 돕는다. 멘토와 멘티의 일대일 교육과 연합 라이딩으로 자연스러운 정서 지원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룹홈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한 '튼튼한가(家)' 역시 남다른 의미가 있다. 그룹홈은 가정 해체로 입소하는 아동들의 보호시설로, 일반 가정집에서 생활하는 주거 형태를 띠고 있다. 보통 아동 5~7명이 관리자와 함께 지내는데, 일반 가정보다 가구와 가전제품의 사용 빈도가 높아 집기류의 수명이 짧고, 고장도 잦은 편이다. '튼튼한가(家)'는 TV와 청소기부터 식기소독기, 식기세척기 등 그룹홈 상황에서 필요한 노후 가전과 아동의 연령 및

1 대연만의 사회 공헌 커뮤니티인 WE:DO는 WE DO EVERYTHING의 준말로 스포츠, 취미, 문화·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배우고 즐기며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예체능 장학 사업 '빛나는 꿈 키움'으로 그림에 대한 꿈을 이어가는 학생의 작품
3 그룹홈의 노후된 가전과 가구 교체로 아동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된 모습

성장에 맞춘 책상, 침대 등을 교체해주며 아동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돕는다.

함께 달리고 나누는 WE:DO 프로젝트

대연은 경기 부천과 인천 지역에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유명하다. 창사 때부터 지역과 상생하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기 때문이다. 대연의 시작인 부천시와는 '지역 사회와 복지증진 공헌사업 협약'을 맺고 저소득 아동에게 스포츠 용품 및 프로그램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WE:DO'라는 사회 공헌 커뮤니티 서비스를 론칭해 스포츠와 예술, 재능 등을 사회에 기부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WE:DO의 첫 번째 프로젝트 'WE:DO RUNNING'은 올바른 달리기를 추구하는 서비스로, 현직 마라톤 선수가 코치로 함께 뛰면서 바른 달리기를 교육한다. 공지한 시간과 장소에 맞춰 신청하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며 대연의 직원들 역시 페이서로 함께 뛴다. 이 일환으로 서울 신정여자중학교, 서울 신정고등학교 육상부와 후원 협약을 맺어 분기마다 필요한 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달리기를 매개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커뮤니티로 발전시키는 것이 프로젝트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이다.

WE:DO를 기반으로 이어지는 사내 기부 챌린지 '달GO나'도 대연만의 사회 공헌 철학이 잘 반영된 프로그램이다. '달리GO 나누GO'라는 슬로건 아래 기획한 것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임직원이 나이키 NRC(앱)를 켜고 각자 열심히 달린다. 그리고 러닝 데이터가 담긴 인증샷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지정된 해시태그 '#대연달GO나'와 함께 포스팅하면 1km당 1만 원의 상당의 나이키 제품이 지역사회에 기부되는 방식이다. 달GO나 챌린지는 달리기를 하며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이웃을 위해 기부도 할 수 있어 보람이 배가된다.

더불어 발전하고 성장하는 대연의 미래

올해로 창립 27주년을 맞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대연의 저력은 직원 교육에 있다. 부천에서 매장 하나로 시작해 탄탄한 중견 기업으로 키워낸 김대호 대표는 "개인의 발전이 곧 회사의 발전"이라고 강조하며 직원 교육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대부분 기업이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급별·직무별 교육에 그치는 데 반해 대연은 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MBA 과정이나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 비용을 100% 지원하며 직원 개개인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2008년 고등학교 졸업 후 군에서 제대해 당시 스물세 살의 나이에 입사한 이주찬 리테일 트레이닝팀 팀장은 회사 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앙대 평생교육원에 입학해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주찬 팀장은 "회사의 교육 지원 덕분에 고등학교 졸업 후 16년 만에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돼 감회가 깊다"고 전했다. 2010년부터 총 11명의 임직원이 졸업을 했고, 현재 12명이 학사를 비롯해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지역의 인재 채용으로 지역과 상생도 이어가고 있다. 대연은 매년 20% 내외의 신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데, 지역 인재 채용이 전체 46% 수준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여성 직원 채용을 점차 늘려 지난해에는 여성 비율이 47%에 달하는(여성 관리자 비율 45%) 등 경력 단절과 유리 천장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게 친화적인 사업장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이웃과 함께하는 대연의 따뜻한 겨울나기

대연의 사회 공헌은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어우르며 따뜻한 체온을 전한다. 매서운 추위가 닥친 2019년에는 중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3,000만 원 상당의 겨울용 패딩 점퍼 100벌을 후원하며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 기관 청소년, 홀몸 어르신의 겨울나기를 응원했다. 매년 시행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2018년에는 '중소기업 경영혁신사례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으로 연탄을 마련해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상금으로 준비한 연탄 1,700장은 부천시 소사동과 대장동 어르신 가정에 따뜻한 마음이 되어 무사히 배달되었다.

4 지속적인 백미 기부로 지역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5** 부천시와 협약을 맺어 저소득 가정 아동과 운동부 학생에게 스포츠용품을 지원한다.
6 임직원 모두가 배달에 나서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모습

명절인 설과 추석에는 이웃 돕기 성금으로 본사 인근의 부평구 일산동에 백미 1,000kg 기탁을 이어갈 뿐 아니라, 나이키 매장의 리뉴얼이나 신규 오픈 시 지역사회에 백미를 기부하는 선행도 함께 펼치고 있다. 대전 은행동 나이키 매장의 리뉴얼 오픈에는 대전 중구 은행선화동 행정복지센터에 1,000kg의 백미를 기탁했고, 원주 중앙동 나이키 매장과 제천 나이키 매장의 신규 오픈에는 해당 시의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백미 10kg 50포를 후원하며 지역 상생의 모범을 보였다. 이처럼 따뜻한 이웃사랑으로 일상에 나눔을 더하고 정성을 보탠 대연의 사회 공헌 활동은 멈추지 않는 마라톤처럼 계속될 전망이다. 대연과 함께 뛰는 나눔의 러닝메이트가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바라본다.

8년째 이웃 돕기 실천해온 전주개인택시 진안군향우회

“나눔으로 회원들의 자긍심이 넘칩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있느냐고 되묻는다. 고향 이웃들을 도우니 더 기쁘다면서 말이다. 전주개인택시 진안군향우회 이야기.

글 강은진 **사진** 전주개인택시 진안군향우회

진안군청을 찾아 성금을 기탁한 전주개인택시 진안군향우회 회원들

나눔으로 고향 돕기

올해도 어김없이 진안군청을 찾는 이들이 있다. 바로 전주개인택시 진안군향우회 회원들이다. 지난 11월,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진안군청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또 그 자리에서 향우회 회원 황의옥 씨가 개인적으로 성금 1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성금은 사랑의열매를 통해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한다. 10년째 전주개인택시 진안군향우회를 이끌고 있는 정민열 회장은 “나눔은 회원들의 자긍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향우회 재무 담당 회원님의 제안으로 시작했어요. 뭔가 뜻깊은 일을 하면 좋겠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바로 회원들에게 알렸죠. 100여 명의 회원 중 누구 한 사람 망설이지 않고 전부 흔쾌히 동의해줘서 이렇게 8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주개인택시 진안군향우회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이웃을 위한 성금으로 1년에 두 번 진안군청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 같은 선한 영향력은 회원들에게도 전달돼 이번에 함께 전달식에 참석해 성금을 전달한 황의

1

2

옥 씨는 향우회 성금 모금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매년 50만 원씩 기부해왔다.

크고 작은 단체가 동참하길

정민열 회장은 나눔을 실천한 후 회원들이 훨씬 단합도 잘되고 있다며 자랑했다. 남을 돕자고 나선 일에 자신들이 더 힘을 얻고 있다면서 말이다.

“진안군청에서도 굉장히 고마워하시고요, 방송을 보고 전라북도애향운동본부 본부장님도 연락을 주시고…. 또 큰일을 했다고 고맙다며 신문사 사장님도 전화를 주시기도 하고요. 칭찬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웃음)”

정민열 회장은 회원들이 힘닿는 데까지 해보자고 한 게 벌써 8년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계속 힘닿는 데까지 해볼 참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우리 소식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단체가 많잖아요. 향우회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모임들이 우리처럼 나눔에 동참한다면 정말 살 만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전주개인택시 진안군향우회 100여 명 회원의 나눔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힘이 닿는 데까지.

1 별도로 성금을 전달한 향우회 황의옥 회원(왼쪽)
2 향우회 나눔을 주도한 정민열 회장(왼쪽)과 진갑섭 재무담당

제10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시상식

“나눔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제10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시상식을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개최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더불어 사는 의미와 나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자리였다.

글 이선희 **사진** 이승재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한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가운데 왼쪽)과 양호영 커뮤니케이션본부장 및 수상자들

열띤 참여 이어진 국내 대표 나눔공모전

사랑의열매와 교육부가 함께 주최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등이 후원하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이하 나눔공모전)’이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개인과 학교 등 총 12만 7,002건의 작품이 응모되었으며 1만 1,868건의 시상이 이루어졌다. 더욱이 매년 참가 작품 수도 꾸준히 증가하며 명실공히 국내 대표 나눔공모전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에는 나눔에 대한 진심이 담긴 다양한 작품이 접수되어 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랐다는 후문. 심사위원들이 고심한 끝에 교육부장관상을 비롯해 시도 교육감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상 등의 수상자가 결정됐다.

나눔 생활화의 작은 씨앗이 되길

지난 11월 18일에 개최한 나눔공모전 시상식은 대표 수상자와 가족 90여 명,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 양호영 커뮤니케이션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격적인 시상에 앞서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홍보대사인 마술사 최현우도 영상으로 깜짝 등장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황인식 사무총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눔의 가치와 따뜻한 진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 공모전이 나눔 생활화의 작은 씨앗이 되어 자라나는 학생들이 나눔에 친숙해지고, 일상에서 적극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격려와 축하를 건넸다. 시상이 끝난 후에는 수상자와 가족들이 사랑의열매 별관으로 이동해 그곳에 전시된 수상작을 감상했다. 수상자들은 자신의 작품을 발견하는 반가움도 잠시, 이내 다른 수상작을 가족과 함께 찬찬히 살펴보며 나눔의 의미를 되짚었다. 나눔의 의미가 그들의 일상에서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

1

“나눔 하면 기부나 봉사 활동 등을 떠올립니다. 기부, 봉사 활동보다 쉬운 나눔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이사장상 수상자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김은진 양의 영상 작품 〈당신에게 나눔이란?〉 중 일부

제10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주요 수상자

교육부장관상

개인 부문

- 경남 가포초등학교 4학년 박연우 군
- 충남 천안불당고등학교 2학년 이지민 양
- 강원 사북중학교 3학년 정은유 양
- 서울 잠현초등학교 3학년 최재원 군

단체 부문

- 울산예술고등학교

지도교사 부문

- 인천 인제고등학교 교사 송광석

2

1 사랑의열매 별관에 전시된 작품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기는 수상자들 **2** (왼쪽부터)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최재원 군, 이지민 양

(왼쪽부터) 조흥식 사랑의열매 회장, 나눔국민운동본부 손봉호 대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국민훈장 수상자 미광전업(주) 박무근 대표이사, 국민포장 수상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박말순 천안지구협의회원, 국민포장 수상자 (주)와사 강춘화 대표, KBS 김의철 사장,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 전국재해구호협회 김정희 사무총장

우리 사회에 나눔을 전한 이들

아름다운 당신, 올해도 고맙습니다

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다. 올해도 곳곳에서 온정을 나눈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따뜻함으로 가득했던 제9회 사랑의열매 대상과 2022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의 시상식 현장을 소개한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2022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사랑의열매 주요 수상자

국민훈장 미광전업(주) 박무근 대표이사

국민포장 (주)와사 강춘화 대표

대통령 표창 (주)한국이앤엑스 김충한 회장

국무총리 표창 (합)농업회사법인 매바위 김은기 대표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동제약㈜, 김융기 (김안과의원)
대전문화방송㈜, 비행기장학회, 신정택 (세운철강㈜)
예승유 (㈜매크로통상), 이강심 (판교숲리라유치원)
최승식 (베스트안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중부발전㈜
한승열 (㈜복수정우마트), 현대위아㈜, 황길현 (하나유치원)
㈜나우코스, ㈜대욱케스트, ㈜대원플러스건설
㈜현대리바트, DSR제강(주)

희망을 만든 나눔 영웅들

11월 9일 사랑의열매·보건복지부·KBS가 공동 주최하는 2022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평소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온 기관과 개인에게 시상해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는 행사로, 올해 총 134명에게 나눔국민대상을 수여했다. 이 중 사랑의열매 기부자 수상은 모두 29건이다. 사랑의열매에 10년 동안 매년 1억 원 이상을 익명으로 기부한 '대구 키다리 아저씨' 미광전업(주) 박무근 대표이사가 국민훈장을, 울산 아너 가입 등 33년간 지역사회 이웃을 돌보며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선 (주)와사 강춘화 대표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저소득 청소년 장학 사업, 안 질환 환자 지원, 고독사 예방 등 37여 년간 사회복지 분야에 헌신한 (주)한국이앤엑스 김충한 회장이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창립 24주년, 따뜻한 국민 덕분

11월 10일 사랑의열매 창립 24주년을 기념해 제9회 사랑의열매 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나눔문화 확산과 사랑의열매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시상으로 기부·시민 참여·봉사 부문에서 공헌장, 행복장, 나눔장, 희망장을 수여했다. 올해 수상자는 전 부문 총 66건으로 •공헌장 3건(삼보상사 이용윤 대표, 육군인사사령부, 김천시 박유순 나눔봉사단장) •행복장 6건(푸른세상안과 장진호 대표원장, 한국앤컴퍼니, KBS 박동원 차장,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안시 나눔봉사단 김기춘 관리부장, 세종시 나눔봉사단) •나눔장 20건(골드클래스(주), 동구 김성용 종합사회복지관장, 진천군 나눔봉사단 홍경순 부단장 외 17건) •희망장 37건((주)부산식품 김희규 대표 외 36건)이다.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은 "나눔을 실천하는 국민이 있어 사랑의열매도 24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 봉사 부문 공헌장 수상자 김천시나눔봉사단 박유순 단장, 기부 부문 공헌장 수상자 삼보상사 이용윤 대표, 시민 참여 부문 공헌장 수상자 육군인사사령부(일자리개발예비협력과장 김영균 대리 수상)

국민훈장 수상한 원조 '키다리 아저씨' 미광전업 박무근 대표이사

기부 부문 공헌장

삼보상사 이용윤 대표 '나눔은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란 신념에 따라 19년간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재단법인 동계장학회에 장학금과 본인 소유 건물을 기부해 고향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저소득 학생들 장학금 지원, 수해 피해민과 코로나19 위기가정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시민 참여 부문 공헌장

육군인사사령부 2011년부터 나라사랑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참전 국가유공자 400여 명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왔다. 또 2018년부터는 순직·부상 장병들을 위해 위국헌신전우사랑기금을 운영해 200여 명에게 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했다.

봉사 부문 공헌장

김천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박유순 단장 박유순 단장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에 가입해 정기 기부를 실천하고,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알리는 등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세상을 바꾸는 모두의 펀딩

사랑의열매 크라우드펀딩

사랑의열매가 새로운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달에는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펀딩을 시작했다.

글 이선희

무엇이든 스스로 하는 '일상'을 선물해주세요

모금 기간 2022년 11월 22일~2023년 2월 20일
목표 금액 200만 원
모금 사용 음성 신호기, 주머니 확대경, 음성 체중계, 액면 지시계 지원
모금 참여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 → 캠페인 → 크라우드펀딩

OR코드를 찍으면 사랑의열매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

시각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

"무엇이든 스스로 해내고 싶어요"

시각장애인은 물 한 잔을 따를 때에도 혹시나 물이 넘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합니다. 비장애인에겐 당연한 일상이 시각장애인에겐 당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일상을 도와줄 보장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체를 10배 확대하는 주머니 확대경, 체중을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음성 체중계, 물이 차 있는 정도를 소리로 알려주는 액면 지시계, 신호등의 신호 등을 아려주는 음성 신호기 등. 시각장애인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구 지원에 따뜻한 사랑을 보태주세요.

12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경기 경기북부 강원 서울 인천

진정한 인술을 펼친 박희붕외과의 나눔 의술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박희붕외과는 유방·갑상샘 전문 병원으로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명성이 자자하다. 2004년 개원한 이래 수원시 여성 인구의 25%에 달하는 환자가 찾았을 정도다. 게다가 의술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보듬는 나눔을 실천하며 진정한 인술을 베풀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김기남, 경기사랑의열매

2013년 경기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박희붕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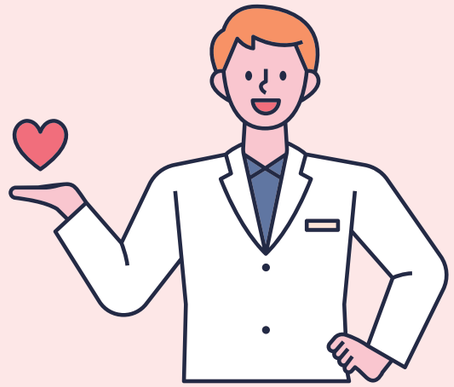
나눔 명의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박희붕외과를 이끄는 박희붕 원장은 국내 유일의 유방 조직검사 장비를 개발한 의료인으로, 손꼽히는 유방암 명의로 통한다. 그럼에도 자만하거나 자신의 실력을 앞세우지 않고 오히려 묵묵하게 진료와 수술에만 매진하는 타고난 의사다. 이런 그의 성격에 따라 그동안 기부도 조용히 진행해왔다. 박희붕 원장이 나눔에 뜻을 가진 건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그가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에도 대학에 진학해 의학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장학재단에서 지원해준 장학금 덕분이었다. 이후 의사가 된 그는 자신의 의술을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쓰고 싶다는 생각으로 대학교수직을 내려놓고 2004년 지금의 박희붕외과를 개원했다. 3년 만에 병원 운영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자,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나눔을 시작했다.

아너에 이어 착한일터 가입까지

박희붕 원장은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한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지부터 교복, 급식, 생활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그들의 성장을 함께했다. 그 과정에서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었고, 이후 2013년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으로 이어지며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그의 선한 영향력은 가까운 곳부터 퍼져나갔다. 병원 직원들 또한 봉사와 후원이 몸에 배어 습관처럼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 지난 9월에는 직원들이 매달 급여 일부를 기부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경기 사랑의열매 착한일터 가입까지 이뤄졌다. 박희붕외과에서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전한 기부 금액만 10억 원에 달하며, 저소득층 어린이, 1인 가구 어르신,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보듬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박희붕 원장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얻는 소득으로 사회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는 말을 끝으로 진료실로 발걸음을 돌렸다. 주위에서 쏟아지는 찬사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박희붕 원장. 나눔으로 인술을 펼치는 명의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이유다. ♣

강원 지역 산불 피해 복구 돕기에도 성금을 전달한 박희붕외과



"나눔이 서로의 마음에 스며들어 다시 순환되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 박희붕외과 박희붕 원장

나눔명문기업 가입하며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주)바늘이야기 송영예 대표

“손뜨개의 따뜻함을 사회에 전하는 것이 소명”

착한가게를 시작으로 나눔명문기업까지
사업과 나눔, 모두를 성장·발전시킨
송영예 대표의 따뜻한 나눔 여정.

글 강은진 **사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주)바늘이야기 나눔명문기업 가입식에서 기념 촬영 중인 경기 사랑의열매 권인욱 부회장과 송영예 대표(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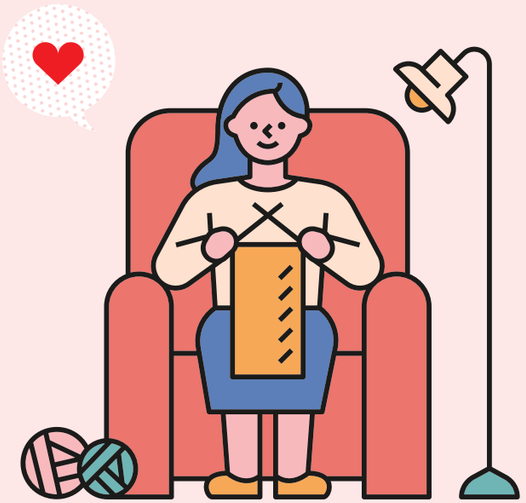
> “손뜨개의 따뜻함과 정성을 사회에 환원해 그 따뜻함을 다시 사회에 전하는 것, 바로 바늘이야기의 소명입니다.”
>
> – (주)바늘이야기 송영예 대표

경기북부 8호 나눔명문기업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의 여덟 번째 나눔명문기업이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손뜨개 전문 기업 (주)바늘이야기다. 지난 11월 3일, 사랑의열매 명예의 전당에서 (주)바늘이야기 송영예 대표와 경기 사랑의열매 권인욱 부회장,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강주현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입식을 진행했다. 나눔명문기업은 1억 원 이상 기부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바늘이야기의 기부금은 파주시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더불어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모 가장 여성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송영예 대표는 “착한가게를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었는데, 2022년에는 나눔을 실천하는 나눔명문기업이 돼 정말 기쁘다”며, “이렇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손뜨개를 사랑하는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양한 나눔으로 따뜻함 전해

착한가게 기부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나눔명문기업까지 가입한 (주)바늘이야기의 누적 기부액은 1억 1,852만 원에 달한다. 그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과 함께 10여 년간 머플러 기증 및 편모 가정을 위한 난방비 지원, 지파운데이션과 함께 세탁기 지원 등 여성을 위한 다양한 실생활 후원 사업을 진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왔다. 송영예 대표는 “(주)바늘이야기는 직원은 물론 손뜨개를 사랑하는 모든 분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기업으로, 손뜨개의 따뜻함을 나눔으로 사회에 전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바늘이야기는 손뜨개용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손뜨개 전문 기업이다. 2006년부터 (사)한국손뜨개협회를 설립하고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5층 규모의 뜨개인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 ‘바늘이야기 연희점’을 오픈해 뜨개질이 생소한 일반인에게도 주목받는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



착한가게 가입 독려 캠페인 펼치며 활약 중인 춘천시 나눔봉사단

“춘천시 모든 업체가 착한가게가 되는 그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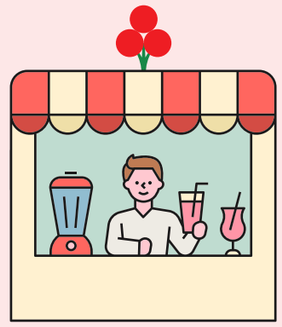
춘천시 나눔봉사단은 오늘도 신발 끈을 단단히 묶는다. 한 곳이라도 더 착한가게를 알리기 위해서다.

글 강은진 **사진** 강원사랑의열매

1 우레카 김세하 대표(가운데)와 한금동 단장(오른쪽)이 함께한 착한가게 현판식 **2** 창원건축사사무소 착한가게 현판식

신임 단장, 착한가게 독려 캠페인 벌여

지역사회를 위한 춘천시 나눔봉사단의 활약이 순항 중이다. 그중 착한가게 독려 캠페인이 눈에 띈다. 신임 단장이 취임하면서 착한가게 가입이 이어지며 훈훈한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금동법무사 사무실의 한금동 대표가 춘천시 나눔봉사단 신임 단장으로 취임했다. 한금동 단장은 나눔봉사단 부단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쳐왔을 뿐 아니라 ‘2022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식’에서 개인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한금동 단장은 취임 이후 춘천시 나눔봉사단 단원들과 함께 착한가게 가입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벌였다. 단원들과 함께 춘천시 전역을 누비며 착한가게에 대해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나눔에 동참해주길 호소했다. 이러한 나눔봉사단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링컨법률사무소, ●우레카, ●원전기설계사무소, ●고려의료기, ●케이원산업, ●전진기업, ●창원건축사사무소, ●동산자원 등 총 여덟 업체가 착한가게에 새롭게 가입했다.

지속적으로 착한가게 알릴 것

춘천시 나눔봉사단의 활약으로 착한가게에 가입한 우레카 김세하 대표는 “착한가게는 우리 식당을 찾아주는 손님들과 다 함께 실천하는 나눔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주변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원전기설계사무소 원천희 대표는 “어려운 때일수록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며, “착한가게는 그런 마음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춘천시에서 이번에 가입한 여덟 업체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강원도에서 기부를 약속한 착한가게는 1,408곳에 달한다. 한금동 단장은 “춘천의 모든 업체가 착한가게에 가입하면 정말 좋겠다”며, “최대한 많은 가게가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강원사랑의열매 소속 춘천시 나눔봉사단은 지난 2013년 7월 창단한 이래 지금까지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홀몸 어르신을 위한 김장 나눔, 취약 계층을 위한 방역용품 전달, 저소득층을 위한 명절 선물 세트 전달 등 봉사도 병행해왔다.

3 춘천시 동산자원 착한가게 현판식 **4** 원전기설계사무소 착한가게 현판식

나눔으로 뭉친 SBS 〈골 때리는 그녀들〉 시즌 3 감독 10인

“받은 사랑 나눠요!”

시청자들의 사랑에 나눔으로 보답한 따뜻한 소식이다.

글 강은진 **사진** 서울 사랑의열매

1,000만 원 성금 전달

SBS 〈골 때리는 그녀들〉 시즌 3 감독 10명이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하며, 서울 나눔리더스클럽 31호로 가입했다. 지난 11월 9일, 서울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SBS 〈골 때리는 그녀들〉 시즌 3의 감독을 대표해 FC국대패밀리 김병지 감독, FC구척장신 오범석 감독,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 및 나눔리더스클럽 가입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병지 감독은 “대중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 싶어 기부를 생각했고, 감독 모두가 망설임 없이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꾸준히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범석 감독 역시 “좋은 기회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희의 나눔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국민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선물한 축구 감독님들이 따뜻한 나눔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전달해주신 기부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나눔리더스클럽은 다양한 분야의 모임이나 단체가 3년 내 1,000만 원 이상을 기부할 경우 가입 가능한 기부자 모임이다.

(왼쪽부터) 나눔리더스클럽 가입식에 참석한 신혜영 사무처장, 김병지 감독, 오범석 감독

온기 가득한 마을 만들기!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사랑의열매 온도탑’을 설치하며 일제히 캠페인을 시작했다.

글 강은진 **사진** 서울 사랑의열매

서울시청 복지정책실 김상한 실장(왼쪽)과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지역 위한 집중 모금 시작

서울 사랑의열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92일 동안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 캠페인은 지역 내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집중 모금과 지역사회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2001년부터 서울 사랑의열매가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4,271억 원 성금·성품이 모금되어 서울시 취약 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지원했다. 올해는 4,463억 원의 모금액을 목표로 캠페인이 진행된다. 개인, 단체, 기업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은 성금은 추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생계·주거·의료비 등의 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청 및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성금·성품 접수가 가능하다.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는 QR코드 모금도 병행한다. 또 다양한 나눔 이벤트를 통한 지역 모금 행사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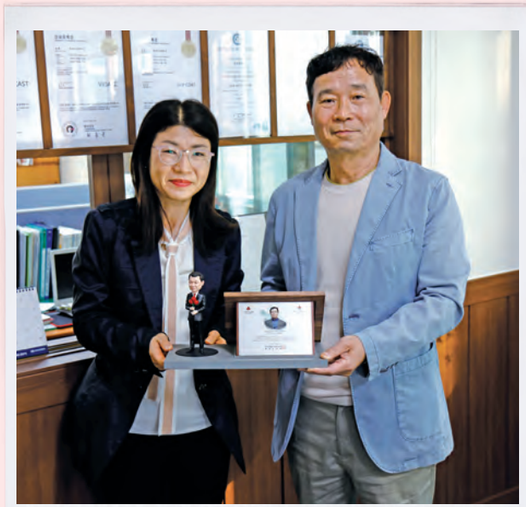
인천 두 번째 초고액 아너 탄생, 한국후락스 이상견 대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파”

아너에서 초고액 아너로, 나눔을 멈추지 않는 한국후락스 이상견 대표다.

글 강은진 **사진** 인천사랑의열매

김은정 인천 사랑의열매 모금팀장, 한국후락스 이상견 대표(오른쪽)가 본인 모습의 피겨를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후락스 이상견 대표

미래 세대 위한 헌신

인천 사랑의열매 제2호 초고액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후락스 이상견 대표다. 이상견 대표는 인천 사랑의열매 40호 회원으로 1억 원을 완납하고, 추가로 2억 원 기부를 약속하며 초고액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부인 전경숙 아너는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로, 이상견 대표와 전경숙 아너는 인천 6호 부부 아너이기도 하다. 이상견 대표는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천 지역 아동복지 시설에 장학금과 책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상견 대표는 “인천의 두 번째 초고액 아너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힘든 시기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싶어 기부를 약속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은 “2018년 부부 아너 가입에 이어 초고액 아너로 가입해주신 이상견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아이들을 위한 아너님의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아너 소사이어티 초고액 기부자 클럽은 3억 이상은 ‘하이클래스 아너’, 5억 이상은 ‘노블레스 아너’, 10억 이상은 ‘프레스티지 아너’로 가입할 수 있다. ♣

‘희망2023나눔캠페인 따뜻한사랑나누기 기초자치단체 부서장 간담회’ 개최

이웃 위한 지자체와 나눔 협력

캠페인을 앞두고 인천 사랑의열매가 인천 지자체 복지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글 강은진 **사진** 인천사랑의열매

지자체 협조 이끌어

지난달 11월 8일, 인천시 남동구청에서 인천 사랑의열매의 ‘희망2023나눔캠페인 따뜻한사랑나누기 기초자치단체 부서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간담회는 인천시 10개 군·구청 복지 담당 과장과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12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기초자치단체 부서장 간담회는 연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 11번째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천 사랑의열매 지역 연계 사업과 ‘희망2023나눔캠페인 따뜻한사랑나누기’ 사업을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지역 연계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 사랑의열매 박용훈 사무처장은 “인천 사랑의열매의 희망나눔캠페인은 인천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 축제로, 많은 분이 동참할수록 도움이 필요한 인천의 이웃들이 희망을 가진다”면서, “지자체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기념 촬영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기초자치단체 부서장 간담회 참석자들

12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울산

(왼쪽부터 시계 방향) 신보미 주임, 서현철 계장, 이혁문 주임, 김종필 위원장, 윤성훈 본부장, 이원민 과장보, 금동명 본부장

NH농협 경북지역본부

“항상 곁에서 힘이 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NH농협 경북지역본부는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민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는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발 벗고 나선다. 지역사회를 향한 이들의 나눔에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다. 글 길현정 사진 박충열

나눔문화 이끄는 임직원 열정 돋보여

NH농협 경북지역본부(이하 경북농협)는 2003년부터 20년째 경북 사랑의열매에 꾸준히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매년 연말 이웃 돕기 성금 및 김장 김치와 쌀 등의 현물을 기탁하는 것은 물론, 경북 지역에 크고 작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나눔에 동참해왔다. 또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성금으로 명절 떡 나눔, 재해 지역 피해 복구 지원,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엔 특히 간부 직원의 적극적인 나눔 참여가 두드러진다. 2021년 경북 사랑의열매가 실시한 ‘범도민 이웃사랑행복나눔캠페인’에 3급 이상 간부 직원 50여 명이 성금 1,270만 원을 전달하며 모범을 보였다. 또한 경북농협이 경북 4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한 데 이어 경북지역본부 금동명 본부장과 경북영업본부 윤성훈 본부장이 나란히 나눔리더에 가입해 직원들의 귀감이 됐다.

도움 필요한 곳에 함께할 터

농협법 제1조는 NH농협의 목적을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정의한다. 경북농협도 조직 가치에 따라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존재 의미를 농민과의 상생에서 찾는 기관답게 나눔은 임직원의 현장 봉사 활동이 큰 축을 이룬다. 특히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가뭄에 단비 같은 영농철 일손 돕기는 가장 중요한 나눔 활동 중 하나다. 최근 자연재해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 봉사단의 역할도 더욱 커졌다. 울진 산불 발생 당시엔 진화 현장에서 실시간 소통하며 필요한 물품과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해 지역민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후문이다. 경북농협은 앞으로도 농민과 지역민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며 세심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우리는 농민과 지역민에게 산소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곁에서 함께하며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 NH농협 경북지역본부 금동명 본부장

“농협 직원에게 나눔은 특별활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항상 같이 가는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김종필 경북지역위원장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하는 착한 농협이 되겠습니다.”

– NH농협 경북영업본부 윤성훈 본부장

임직원이 함께한 현대위아 1% 기적 캠페인

“맞춤형 옷으로 더 편안한 일상이 되길”

현대위아는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라는 사회 공헌 비전 아래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 상생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신체장애인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맞춤형 의류를 전달하며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나섰다. 글 이선희 사진 경남 사랑의열매

(왼쪽부터) 신체장애인 맞춤형 의류 지원식에서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류학기 관장, 현대위아 T/C설계팀 송일영 책임연구원, 공작기계생산부 박상돈 반장, 경남 사랑의열매 이성도 사무처장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옷

지난 10월 31일 현대위아는 경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신체장애인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맞춤형 의류를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달했다. 기존 의류는 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불편함을 초래했다. 반면 맞춤형 의류는 오래 앉아 있어도 자세가 편안하도록 밑위길이를 길게 만들거나 단추와 지퍼 대신 자석 버튼과 벨크로 여밈으로 교체하는 등 신체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혼자서도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 현대위아는 이번에 1,20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의류 구매를 지원해 신체장애인이 보다 편안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맞춤형 의류 구매에 사용한 비용은 현대위아 임직원이 2012년부터 10년째 자발적으로 매달 월급의 1%를 모아 지역사회를 돕는 ‘현대위아 1% 기적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해 그 의미를 더한다.

맞춤형 의류가 또 다른 ‘날개’가 되길

맞춤형 의류를 구매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현대위아는 신체장애인 60명을 대상으로 미리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의복 종류나 디자인 등 개인의 의견을 반영, 필요한 제품으로만 구입해 장애인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의복을 지원했다. 전달식을 통해 맞춤형 의류를 받은 지원자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다. 휠체어 장애인 대부분은 다리 신경이 무감각해 겨울이 되면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방한에 신경 써야 한다. 하지만 엉덩이를 덮는 코트나 패딩은 휠체어 끼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춥더라도 짧은 점퍼를 입을 수밖에 없다. 유둘준 씨는 “현대위아가 선물해준 롱 코트는 앞뒤 길이를 다르게 만들어 휠체어 걸림 없이 무릎을 덮을 수 있고, 어깨와 팔 연결 부위에 신축성 높은 원단으로 액션 밴드 처리를 해 휠체어 타기도 편리하다”며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장애인의 외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장소·상황에 맞춰 옷을 입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옷 선택의 폭이 좁다. “옷이 날개다”라는 말처럼 현대위아의 맞춤형 의류 지원은 단순 물품 제공을 넘어 장애인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는 ‘날개’가 되어주리라 확신한다.

맞춤형 의류를 지원받은 강대선 씨(왼쪽), 유둘준 씨

현대위아와 경남 사랑의열매,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신체장애인 60명에게 1인당 2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의류를 지원했다.

“신체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용 맞춤형 의류로 일상생활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 기부 참여 임직원 대표 현대위아 공작기계생산부 박상돈 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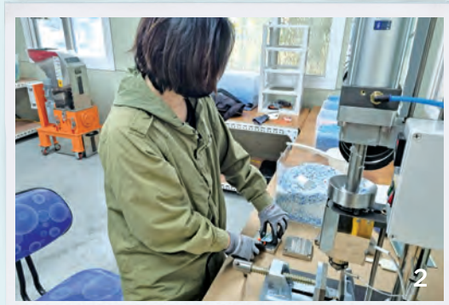
부산 사랑의열매, 플라스틱 폐기물 재가공 프로젝트
'플라스틱방앗간 in 부산' 실시

"자원 순환의 방앗간이 돌아갑니다!"

단순 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이 부산에서도 시작됐다.

글 강은진 **사진** 부산사랑의열매

1



2

1 부산 사랑의열매는 플라스틱방앗간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플라스틱 자원 순환에 관한 교육과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2** 수거한 플라스틱은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한다.

폐플라스틱 자원 순환 플랫폼

부산 사랑의열매가 부산 지역의 자원 순환을 위한 폐플라스틱 재가공 시스템 사업을 시작했다. 이른바 부산형 '플라스틱방앗간'이다. 플라스틱방앗간은 전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운동 '프레셔스 플라스틱'(Precious Plastic)에 동참하고 있는 한국의 캠페인이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만 1억 5,000만 톤이고, 매년 바다에 유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800만 톤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썩는 데 걸리는 시간은 500년 이상이다. 부산 역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부산 사랑의열매는 •재가공 시스템 및 지역사회 자원 순환 시스템 마련, •시민 참여를 통한 프레셔스 플라스틱 프로젝트의 활성화 및 확산, •플라스틱 사용 감량 및 자원 순환 인식 개선을 목표로 사단법인 부산환경운동연합을 통해 '플라스틱방앗간 in 부산'을 기획했다. 또 이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 사업 이어가

지난 10월 27일, 부산 중앙동 지하상가에 위치한 플라스틱방앗간 in 부산 개소식이 있었다. 이곳은 부산 지역 폐플라스틱 자원 순환 플랫폼의 중심으로, 제로 웨이스트 숍 10곳과 사회복지 기관 및 마을 공동체가 함께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수집은 제로 웨이스트 숍과 시민불편운동본부(벡스코·부산환경공단·부산항만공사·한국남부발전 등) 환경 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한다. 수거한 플라스틱은 방앗간에서 세척하고 분쇄해 270℃ 고열에서 녹인 후 튜브 짜개, 열쇠고리, 컵 받침대 등으로 업사이클링한다. 이렇게 만든 제품은 폐플라스틱을 제공한 기관과 시민에게 돌려준다.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플라스틱방앗간 in 부산 홈페이지(ppbusan.com)에서 수거 방문 예약을 하면 된다. 수거 대상은 작은 플라스틱 병뚜껑이다. 이 밖에도 부산 사랑의열매는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비닐 대신 장바구니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쿠폰을 제공하고, 10개 모으면 덤으로 더 주며 비닐 사용을 최소화하는 동래구노인복지관의 '에코라이프 투게더'와 감천문화마을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쓰레기를 수거해 업사이클 제품으로 재생산하는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의 '제로 플라스틱정거장'이 대표적이다.

부산 중앙동 지하상가에 위치한 플라스틱방앗간 in 부산 개소식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기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나눔

최근 대구 사랑의열매에 작고한 부모님 이름으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짙은 그리움과 애틋함이 배어 있는, 그래서 더 소중한 나눔이다.

글 이선희 **사진** 대구 사랑의열매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한 (주)자우버 전정숭 대표(왼쪽에서 네 번째)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베풀며 살아간다는 (사)재대구경북시도민회 최병일 회장(가운데)

故 전수종 옹·故 박영자 여사 (대구 173·140호)

(주)자우버 전정숭 대표의 부친인 故 전수종 옹은 생전 지역에 기탁해놓은 장학금이 지금도 지역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을 정도로 나눔에 뜻이 깊었다. 전 대표는 나눔에 앞장선 부모님을 기리고자 두 분 모두 아너 회원에 이름을 올렸다.

故 황옥 여사(대구 209호)

대구 178호 아너인 (사)재대구경북시도민회 최병일 회장이 25년 전 별세한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너에 가입했다. 생전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그도 나눔의 길을 걸으며 그리움이 더 커졌다. 아너 가입은 어머니께 보내는 그의 선물이다.

故 신현철 옹·故 김옥순 여사(대구 167·168호)

대구 아너 대표이자 (사)아트빌리지 신홍식 대표의 부모님은 넉넉지 않은 생활 속에서도 배고픈 이가 찾아오면 정성껏 밥상을 차려 대접할 만큼 정이 깊고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었다. 나눔을 생활화하시던 부모님의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故 이진남 여사(대구 210호)

지난 9월 (주)동현메탈 김창연 대표이사는 대구 동구 도학동 소재 사찰 북지장사에서 지병으로 별세한 어머니의 두 번째 재를 마친 후 조의금 전액을 기부했다. 아너 197호 회원인 김 대표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 주변을 둘러보면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소외 계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작은 손길이라도 내밀어야 마음이 편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자신의 진심이 닿길 바라며, 아너 가입으로 이번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

부모님 이름을 나란히 아너 회원에 올린 (사)아트빌리지 신홍식 대표

어머니의 장례 조의금을 모두 기부한 (주)동현메탈 김창연 대표이사(가운데)

"어머니께서 아너 소사이어티 선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나눔 실천이 저에게 이어진 것처럼 제 아이들에게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 (주)동현메탈 김창연 대표이사

결식 우려 아동 영양 간식 지원한 SK이노베이션

“급식 없는 방학에도 든든하고 튼튼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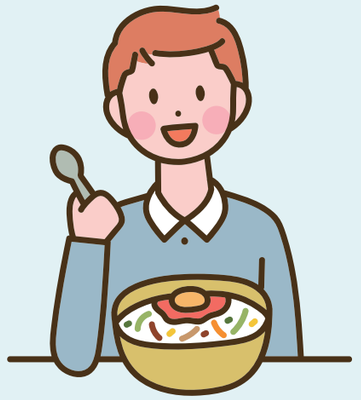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겨울방학이 곧 시작된다. SK이노베이션은 급식 없는 방학 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영양 간식을 지원한다. 배고플 걱정 없이 속은 든든하게, 몸은 튼튼하게 방학을 잘 보내길 바라는 마음까지 담아 전달한다.

글 이선희 **사진** 울산사랑의열매 **참고자료** 울산시청

지난 10월 11일 울산시청에서 진행한 결식 우려 아동 영양 간식 전달식. SK이노베이션의 기부금 6,000만 원과 그 외 기부금을 더해 총 8,000만 원을 전달했다.

“아이들을 위한 일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일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사회 안전망 구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 박정원 대외협력실장



필수영양소까지 챙긴 간식 전달

울산 사랑의열매와 SK이노베이션,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행복얼라이언스가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해 나섰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 울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 우려 아동에게 총 1만 식의 영양 간식 꾸러미를 지원하기로 한 것. SK이노베이션이 후원하고, 사랑의열매가 기부금 관리 및 운영 전반을 맡았다. 울산시는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대상자 선정을, 사회적기업 행복도시락 울산점에서는 간식 제조 및 배송을 담당한다. 10월 11일 울산시청에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 박정원 대외협력실장, 울산 사랑의열매 조진호 사무처장,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행복나래) 임은미 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식 우려 아동 영양 간식 전달식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개월간 성장기 아동들을 위해 제철 과일, 우유, 달걀 등 필수영양소 섭취에 도움이 되는 간식을 도시락으로 배송하며 겨울나기를 함께할 예정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기업

SK이노베이션은 지역사회 곳곳에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특히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관심이 크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수업이 중단되고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교급식과 식사 지원에 의존해온 아동의 결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사랑의열매에 기부금을 전달해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맛있으며, 영양가 높은 식사를 2년째 지원하고 있다. 5개 지역(울산, 인천 서구, 충북 증평, 충남 서산, 대전 대덕)의 659명 아동에게 총 3만 6,260식을 도시락이나 밑반찬으로 제공하며, 학기 중 중식·석식부터 방학, 주말 등 지역별·상황별로 나눠 꼼꼼하고 세심하게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이 외에도 SK에너지 및 기타 계열사에서 복지시설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위해 6억 4,100여만 원(최근 3년 기준)을, 복지시설 지원 및 난치병 아동 지원을 위해 SK 계열사 임직원이 39억 7,500여만 원(최근 3년 기준)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진정한 자세를 보여준다.

12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충남
세종
대전
충북

8년째 '사랑의 나눔 모금 행사'로 이웃사랑 실천해온 태안어린이집

"아기 산타의 저금통 선물, 받아보셨나요?"

12월이면 아기 산타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전해줄 저금통 선물을 준비한 아기 산타를 말이다. 태안어린이집 원아들이다. 글 강은진 **사진** 이승재

세 살 원아부터 나눔 동참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어려서 익히는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데, 세 살부터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 있다.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에 위치한 태안어린이집이다.

"우리 원은 세 살부터 일곱 살까지 180여 명의 원아가 있는데요, 원생 모두 나눔에 동참하고 있어요! 다섯 살만 되어도 아이들은 나눔에 대해 설명해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반 아이들과 함께 사진 촬영에 나선 태안어린이집 신정미 선생님은 원생들이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안어린이집을 대표해 표지 모델로 나선 친구들도 모금 저금통과 사랑의열매 인형 등을 전혀 낯설어하지 않았다. 사진을 찍기 위해 동전을 건네자 익숙한 듯 저금통에 넣었다.

"무엇보다 뜻깊은 12월에 우리 원생들이 〈사랑의열매〉 표지 모델이 되어 정말 기뻐요. 저희는 작은 정성을 보태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니… 뿌듯하기도 하고요. 아이들도 나눔에 대해, 사랑의열매에 대해 더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신정미 선생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들이 나눔에 대해 한층 더 잘 알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빨간색 드레스를 예쁘게 맞춰 입고 나눔 천사로 변신한 태안어린이집 모란, 이지아, 서민채, 조하엘, 조서아 어린이(왼쪽부터)

“사랑의열매 하면 좋은 일 하는 줄 알고, 저금통을 전달하며 아이들이 정말 기뻐합니다.” – 태안어린이집 문향숙 원장

12월이면 산타로 변신

태안어린이집은 매년 12월 중순이 되면 ‘사랑의 나눔 모금 행사’를 진행한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태안어린이집 원생들이 모두 산타로 변신하는 날이다. 행사를 통해 아이들은 한 해 동안 모은 저금통을 집에서 챙겨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사랑의열매에 전달한다. 처음에는 군청에서 진행하는 성금 모금 행사에 참석해 저금통만 전달했지만, 아이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나눔을 익힐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성금 모금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이 행사를 통해 직접 저금통을 전달하며 기부를 경험해보고, 나눔의 기쁨을 느낀다. 더없이 훌륭한 나눔 교육이 아닐 수 없다. 태안어린이집의 이 행사는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벌써 9년째다. 원아들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함께 기부에 동참해 매년 약 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해왔다. 현재 누적 기부 금액은 700만 원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긴 시간인데, 그런 시간에 버금갈 만큼 오랫동안 나눔을 이어온 것이다. 한두 번 이벤트도 아니고 보통 정성이 아니다.

학부모 협조가 있어 가능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중심을 잡아주는 무엇인가가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 열매둥이와 함께한 태안어린이집 사랑의 나눔 모금 행사 모습

— 산타 복장으로 모금 행사에 참석한 원생들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용돈을 받아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 저금했어요!” – 태안어린이집 서민채 어린이

고민하던 중, 영유아 스카우트 활동인 ‘비버 스카우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활동을 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은 돈이니 허투루 쓸 수 없잖아요?”

태안어린이집 문향숙 원장은 원생들이 착한 일을 해서 모은 돈이니만큼 뜻깊게 사용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원생들의 착한 일이란 신발 가지런히 정리하기, 큰 소리로 인사하기, 부모님 안마해드리기, 집안일 도와드리기, 음식 골고루 먹기 등이다.

“사랑의열매 하면 좋은 일 하러 가는 줄 알고, 뽐내며 가더라고요. 착한 일 해서 모은 돈이잖아요.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니까요.”

문향숙 원장은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이어오지 못했을 거라면서, 고마움을 나타냈다. 언제나 저금통을 꽉 채워 보내주시는 건 나눔에 동참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니겠느냐면서 말이다.

나눌 줄 아는 어린이가 되길

“아이들이 동전을 모으는 건데도, 매년 보면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열매에 성금을 전달하면 금액 등을 정확히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학부모께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고 알려드리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늘 변치 않고 잘 유지해주시더라고요.”

문향숙 원장은 아이들은 자신들이 꾸준히 모은 결과물을 확인할 때 무척 뿌듯해한다고 말했다. 아직은 어린아이들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단 한 번이라도 아이에게 나눔을 경험하게 해보라고 조언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작은 저금통 하나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요!”

문향숙 원장은 태안어린이집 원생들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어린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기 산타들을 만날 수 있을지 정말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 표창만 2회
다수 수상 이어지는 세종시

“나눔의 명문 도시로 우뚝 섭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표창 수상자를 배출한 세종시, 기부 명문 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다.

글 강은진 **사진** 세종 사랑의열매

“마지막까지 주변을 살피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

– 2022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무총리상 표창 (합)농업회사법인 매바위 김은기 대표

지회 설립 후 수상 이어져

행복 도시 세종시가 기부 명문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4년 세종 사랑의 열매 설립 후 이듬해인 2015년부터 꾸준히 나눔국민대상에서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표창만 2회, 국무총리 표창부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수상이 이어지며 기부 명문 도시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물론 올해도 나눔국민대상에서 세종시의 기부 천사가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2022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농업회사법인 매바위 김은기 대표다. 세종시 최초 농부 아너인 김은기 대표는 쌀농사와 함께 정미소를 운영하며 44년간 명절이면 떡국 떡을 만들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복지 기관 등에 후원하는 등 선행을 실천해왔다. 어린 시절 어려운 형편 탓에 머슴살이를 시작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모두 주변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국무총리 표창은 이 같은 유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김은기 대표는 “농사꾼으로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고 풍족한 만큼 나누며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은기 대표는 세종시 최초의 농부 아너 소사이어티(15호) 회원이기도 하다.

“직원들이 열정으로 나눔과 봉사를 순수하게 실천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 2021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 표창 (주)보쉬전장 세종공장 크로이츠 부르크요하임 대표이사

“세종 사랑의열매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니, 그 공로가 기록돼 큰 상을 받는 것 같다.”

– 2019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 표창 세종중앙신협 민병원 이사장

올해도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배출

기부 명문 도시 세종시의 시작은 2015년 제4회 나눔국민대상에서 한화솔루션(구 한화첨단소재)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 2016년 김윤회 흥덕산업 대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삼성전기, • 2017년 (주)장남, • 2019년 이숙우 성원벤처메디칼 이사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특히 2019년 나눔국민대상에서 세종시 나눔명문기업 1호에 가입하며 나눔을 실천해온 세종중앙신협이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세종 여성 1호 아너 이숙우 성원벤처메디칼 대표와 함께 2관왕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이후 2021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는 (주)보쉬전장 세종공장(대표이사 크로이츠 부르크요하임)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영광을 이어갔다. 이로써 세종시는 나눔국민대상에서 대통령 표창만 2회를 수상한 기부 명문 도시가 됐다. 앞으로도 세종시 사랑의열매는 세종시의 많은 기부 천사와 함께 기부 명문 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지역사회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다.

글 강은진 **사진** 대전사랑의열매

한국타이어는 2011년 5월, 임직원 전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타이어봉사단’을 출범시켰다. 사진은 단원들의 연탄 봉사 모습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의 도약을 응원해준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윤정록 전무

지역사회 위한 헌신 돋보여

세계적 글로벌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대표이사 이수일, 이하 한국타이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정성이 담긴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성장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2011년 5월에 출범한 ‘한국타이어봉사단’은 임직원 전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봉사단은 사회복지시설 일손 돕기,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위한 반찬 배달·말벗 봉사, 집수리 봉사, 지체장애인 나들이 지원, 복지관 아동 돌보기 등 지역의 소외 계층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왔다. 또 2017년 충북 청주시, 2020년 충남 금산군을 비롯해 올해에도 충남 부여군 등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지역을 찾아 나눔의 손길을 보탰다. 그뿐 아니라 생태계 복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까지 총 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등천 상류에 멸종위기종 감돌고기를 방류하고, 구봉산 노루벌에 국내 고유종인 미선나무를 식재하는 등 대전·충청 지역 인근에 서식 중인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2012년부터 사회복지인과 자원봉사자, 소외 계층 등을 응원하기 위해 매년 대전 지역에서 ‘나눔음악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차량 나눔에 장학금까지, 전방위 활동

한국타이어는 코로나19 극복에도 힘을 보탰다. 2020년 3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사랑의열매에 5억 원, 대전시 대덕구를 비롯한 충청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취약 계층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성금 7,000만 원을 전달했다. 그리고 같은 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리점주들과 상생하기 위해 총 10억 원 상당의 예방 물품 및 대응 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지역 인재 육성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1997년부터 대전시체육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우수 체육선수 장학금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5억 4,000여만 원을 후원했다. 마지막으로 이동성 콘셉트를 강화한 한국타이어의 대표 공헌 사업 ‘차량 나눔’이다. 이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사회복지 기관에 총 627대의 차량을, 또 안전한 이동 환경을 위한 ‘타이어 나눔’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2만 6,990개의 타이어를 사회복지 기관에 지원했다. 이 밖에도 2003년부터 매년 사랑의열매의 ‘희망나눔캠페인’에 동참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왔다. 앞으로도 한국타이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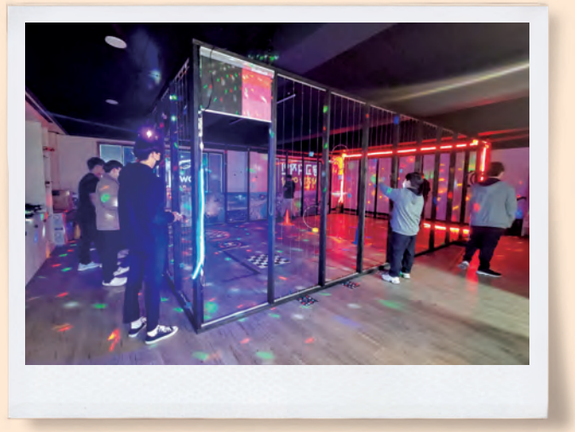
소외 계층 어린이를 위한 ‘드라이빙 스쿨’ 오픈식

아이들 의견 반영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
참여도부터 효과까지 성과 돋보여

“이제 무엇이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아요!”

지루한 수업이 아니며, 억지로 듣는 아이도 없다.
호기심 넘치는 표정으로 서로 질문하기 바쁘다.
자신이 직접 고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글 강은진 **사진** 충북사랑의열매



중학생을 위한 드론 수업 모습. 중등자치회의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고른 프로그램이다.

아이들 의견을 반영해 옵아트, 필름 일러스트 등 보다 다양한 주제로 진행한 미술 프로그램 수업 모습

프로그램 구성 현실화, 반응 좋아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사랑의울타리 지역아동센터의 한 교실, 아이들이 한창 드론 이론 수업을 받고 있다. 처음 접하는 이론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진지하기만 하다. 수업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도 호기심에 교실 밖에서 기웃거린다. 이번 드론 체험활동이 얼마나 유익하고 즐거웠던지는, 아이들의 반응과 얼굴 표정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었다. 수업 중이던 강사는 드론에 관심 있는 학생은 누구나 참여해도 된다며 교실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이 수업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 활동으로, 충북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정서함양을 위한 정서지원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이다. 본 사업은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면서 참여한 아동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앞서 소개한 드론 수업의 경우 중학생이 참여하는 2021년 중등자치회의에서 다음 해에 하고 싶은 활동을 조사했다. 그 결과 뜨개질, 베이킹, 골프, 마술, 축구 등 다양한 의견 중 드론이 13표 중 9표를 얻어 올해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원하는 활동 통해 꿈 찾아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은 수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미술 활동이 대표적이다. 2021년부터 진행한 미술 활동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우울 및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 정서 지원 프로그램으로, 참여 아동 86.4%가 미술 활동에 만족을 나타냈다. 그리고 그중 77%가 지속적인 참여를 원해 2022년에도 미술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특히 이번에는 아이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옵아트, 필름 일러스트, 냅킨 아트, 칼레이도사이클 등 보다 다양한 주제로 총 15회기로 운영했다. 아동의 표현력 향상을 목표로 계획한 이번 미술 프로그램은 활동 전후 자기표현에 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참여 아동 중 68.75%가 자기표현이 사전 대비 사후 4점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뿌듯했다”, “100번을 더 했으면 좋겠다” 등의 소감을 남기며 내년에도 계속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드론 프로그램 역시 수업 종료 후 학부모에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 드론 자격증 취득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현장의 사업 담당자들은 아이들 의견이 반영된 프로그램의 현실화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하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충북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충북 지역의 많은 아동·청소년에게 그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2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전남
제주
광주
전북

여수 종포해양공원&낭만포차거리

낭만이 넘실거리는 전남 1호 나눔거리

지난 10월 전남 최초로 나눔거리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관광객 1,000만 명이 찾는 해양 도시 여수다. 종포해양공원과 낭만포차거리 33곳이 착한가게에 가입하며 전남 나눔의 새 역사를 썼다. **글** 이선희 **사진** 이승재, 전남사랑의열매 **참고** 여수시 문화관광

하멜전시관 내 하멜등대 앞에 세운 나눔거리 조형물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다. 2012년 발매한 버스커 버스커 1집 수록곡 '여수 밤바다'.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와 사랑하는 이를 떠올리게 하는 이 곡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노래 덕분에 여수는 20~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낭만과 황홀함이 가득한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그 낭만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을 꼽자면 단연 종포해양공원과 낭만포차거리다.

"비정기적으로 기부를 한 적은 있어도 정기 기부는 처음입니다. 앞으론 힘닿는 데까지 나눔에 참여하겠습니다."

– 달달해낭만포차 김점엽 대표

"전남 1호 나눔거리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까지, 함께 뜻을 모아준 다른 대표님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열심히 일해 더 큰 나눔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 오성회관 손준자 대표(동문동주민자치위원장)

"여수 대표 관광지로서 여수의 따뜻한 나눔 인심까지 전할 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눌수록 행복이 배가되니 나날이 행복합니다." – 낭만포차16번 여수로포차 백용식 대표

종포해양공원은 2001년부터 5년간 공사한 끝에 구항을 시민 공원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푸른 바다와 파란 하늘의 조화로운 풍경을 감상하기 더없이 좋아 관광객은 물론, 여수 시민도 자주 찾는다. 해양공원에서 10여 분 걸어가면 여수 밤바다와 맛을 즐길 수 있는 낭만포차거리가 있다. 거북선대교 아래에 위치한 낭만포차거리는 화려한 조명에 빛나는 밤바다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관광객이라면 꼭 방문하는 대표 관광지다. 그리고 지난 10월 해양공원과 낭만포차거리에 또 하나의 의미가 더해졌다.

나눔 인심까지 후한 따뜻한 동네

여수시 동문동 주민들은 지역의 새로운 사회복지를 실현하고자 뜻을 모았다. 문제는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이에 동문동 내 가장 큰 관광 명소이자 평소에도 나눔에 앞장서는 종포해양공원과 낭만포차거리 내 상인들에게 정기 기부를 알리는 대안을 떠올렸다. 동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윤진두 위원장과 노재성 종화동상가번영회장이 직접 발로 뛰며 상인들에게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기부 프로그램을 설명했고,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나눔에 동참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단숨에 33곳이 착한가게 가입을 마쳤다.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에 동문동 주민은 물론, 전남 사랑의열매도 깜짝 놀랐다는 후문.

동문동주민자치위원장이자 오성회관 대표인 손준자 씨는 "이곳 상인들은 이미 동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행복천사가게'라는 정기 기부에 참여한 분이 많아서 나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라며 착한가게 단체 가입이 가능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낭만포차16번 여수로포차 백용식 대표는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수 토박이라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좋고 인심 좋은 여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웃음)"라며 손 대표의 말에 덧붙였다. 이들의 착한가게 가입이 특히 주목받은 이유가 또 있다. 전남에서 최초로 나눔거리로 지정되었기 때문. 백용식 대표의 말처럼 '인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훈훈한 결과다.

전남 지역 나눔의 상징이 되다

지난 10월 13일 여수 하멜전시관 앞에서 종포해양공원과 낭만포차거리를 전남 1호 나눔거리로 지정하는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번 선포식에는 전남 사랑의열매 노동일 회장, 정기명 여수시장,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 손준자 동문동주민자치위원장, 동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윤진두 위원장과 착한가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선포식에서 전남 사랑의열매 노동일 회장은 "오늘 나눔거리 조성에 적극 앞장서주신 33개 착한가게 기부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수시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기명 여수시장은 "전남 최초의 나눔거리 조성으로 낭만과 힐링을 만끽하는 해양 관광도시, 나눔과 희망이 가득한 명품 행복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나눔거리를 상징하고자 하멜전시관 풍차 뒤편에는 '나눔' 글자 형상의 조형물을 설치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나눔 실천에 나선 착한가게 대표들의 귀한 뜻을 알리며, 새로운 포토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10월 13일에 진행된 전남 1호 나눔거리 선포식

전남 1호 나눔거리 탄생의 주역, 종포해양공원 & 낭만포차거리 착한가게

거문도은갈치, 따뜻한밥한끼, 낭만24포차, 낭만스테이, 낭만여수밤바다, 낭만포차100도, 낭만포차12번, 낭만포차16번 여수로포차, 낭만포차2번 바다향기, 낭만포차99번, 내가머문펜션&호스텔, 달달해낭만포차, 돌문어상회, 미니스톱 해양공원점, 보물섬, 세븐일레븐 여수하멜등대점, 여수낭만포차88번, 여수낭만포차44번, 13번낭만포차 여수밤바다, 여수야호스텔펜션, 여수해랑, 오성회관, 종화집식당, 퀴즈노스 해양공원점, 하멜포차, 해공삼합낭만포차, GS25 편의점(하멜등대점), 거북선통통, 조선포차, 갯뻘소리낭만포차77번, 종화동NO.1, 여수사랑도포차, 오동도식당

제주 민선 8기 주요 인사 나눔리더 가입 열풍

제주 지역의 나눔리더 가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후 주요 인사들이 나눔에 앞장서며 이목을 끌고 있다. 높은 물가 등 불안정한 경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자 선행을 실천한 진정한 '리더'들의 모습이다.

글 이선희 **사진** 제주사랑의열매

지난 8월에 열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나눔리더 가입식

강병삼 제주시장의 나눔리더 가입식 모습

나눔리더에 가입한 위성곤 국회의원

도정 요직 인사들 기부 이어져

지난 8월 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취임 34일 만에 제주 나눔리더 107호로 가입했다. 그는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위해 제주형 신복지'를 도정 최우선 가치로 내세움에 따라 직접 나눔을 실천한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기부 동참을 독려하고자 했다. 같은 날 오영훈 지사는 제주 사랑의열매 정관에 따라 명예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8월 10일에는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 17일에는 제주도교육청 김광수 교육감이 나눔리더에 가입하며 기부 릴레이를 이어갔다. 또한 도지사, 도의회 의장, 도교육청 교육감이 연이어 나눔리더에 가입한 전국 최초 사례로 기록되었다. 세 사람은 제주 도내 '나눔의 상징'이 된 만큼 도내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제주 사랑의 열매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나눔 실천

이후에도 송재호·위성곤·김한규 국회의원, 강병삼 제주시장, 이종우 서귀포시장, 도의회 김대진 부의장까지 나눔리더 가입에 동참하며 제주도정 내 자발적인 나눔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도정 출범 후 주요 인사들이 나눔리더에 가입하는 이례적 상황이 펼쳐진 것. 그 어느 때보다 도내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데 대한 기대감이 큰 이유다.

한편 도내 가족 단위의 나눔리더 탄생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지난해 현수민·현수진·현도환 남매가 기부금을 전달하며 전국 최초로 청소년 삼 남매가 나눔리더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9월에는 고운이치과 이성주·이남권 원장이 폐금니를 팔아 마련한 성금을 기부하며 나눔리더 부자(父子)가 되었다. 이 외에도 아산상 자원봉사상 수상금 1,000만 원을 기탁한 제주아라요양병원 이유근 원장, 장학금 100만 원을 선뜻 건넨 제주여자고등학교 강민아 학생까지 나이·성별·직업 불문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이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제주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눔리더들의 탄생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서귀포시 이종우 시장도 기부에 동참해 나눔리더에 이름을 올렸다.

김한규 국회의원도 나눔에 동참하며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제주도교육청 김광수 교육감의 나눔리더 가입식. 이로써 도지사, 도의회 의장, 도교육청 교육감이 연이어 나눔리더에 가입한 전국 최초 사례가 되었다.

경제부터 복지까지, 지역 발전 선도하는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936년 설립한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랜 기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주·전남 지역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왔다. 또 지역사회 곳곳을 돌보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 길현정 **사진** 광주 사랑의열매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장학금을 지원했다.

폭넓은 지원 돋보여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와 전남 지역 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다하며 지역 경제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겨왔다. 그뿐만 아니라 활발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05년 광주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고 첫 기부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현물 기탁을 포함해 1억 6,800여만 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당시엔 특별 모금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탰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무산된 신년회 예산 중 일부를 기부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광주상공회의소는 다양한 복지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태안군 원유 유출 사고 피해 주민 지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 지원,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및 광주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등의 복지 기관 후원, 독립 유공자 후손 생계비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온정을 전하고 있다. 또 지역 프로 축구팀인 FC광주를 후원하는 등 폭넓은 나눔을 실천 중이다.

미래지향적 나눔 활동

광주상공회의소의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살펴보면 지역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나눔이 눈에 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장학금 1,000만 원을 후원한 바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힘든 청소년을 위해 장학금 2,000만 원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지역 인재 양성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광주상공회의소는 더 많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그뿐 아니라 미래 환경을 지키는 데에도 앞장선다. 광주시와 광주은행, 광주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탄소 포인트 기부은행 공동 지원 업무 협약에 협력해 ESG 경영 기업과 친환경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이처럼 광주·전남 지역이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광주상공회의소가 앞으로 어떤 나눔을 펼쳐나갈지 다음 행보가 궁금하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 입장권을 선물했다.

"광주 지역에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사회적 책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상공회의소 정창선 회장

취약 계층 이웃에게 김장 김치와 떡국 떡을 선물한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

전북농협의 따뜻한 사회 공헌

나눔으로 지역사회와 행복한 동행

지난 60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농협이 이제는 100년을 향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이에 전북농협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전북의 100년을 함께할 전북농협의 따뜻한 나눔 이야기를 전한다.

글 이선희 **사진** 전북사랑의열매

농민과 지역민을 생각한 나눔 경영

지난 11월 10일 전북농협은 KBS전주방송총국, 전북 사랑의열매와 함께 '2022년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전북농협 등 여러 기관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농업인에게는 희망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사랑을, 기부자에게는 보람을 주는 상생의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의 일환으로 기획했다. 이날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직접 담근 사랑의 김장 김치 10톤은 미리 준비한 떡국 떡 500kg과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또 김장 채소 직거래 장터와 축산물 할인 판매 등도 열려 농민에겐 새로운 판매 활로를, 소비자에겐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자 했다. 농민과 지역을 모두 생각한 나눔 경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매년 명절이 되면 도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있다. 전북농협 외에 지역 농협도 사랑의 쌀 나눔에 함께하며 이웃들의 밥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지속적으로 봉사 활동을 진행하는 지역사회공헌단

다가올 미래를 든든하게 준비

한편, 노동조합이 주축이 되어 전북농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공헌단을 조직해 의미 있는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농촌 지역 1인 가구 어르신, 장애인 가정, 조손 가정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웃을 위해 사랑의 집 고치기 활동인 'NH해피하우스'를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장수군에 이어 11월에는 완주군 농가의 도배장판 교체 작업 등을 진행하며 곳곳에 '해피하우스'를 탄생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지속 가능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전북농협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친환경 녹색 교육 공간을 제공하는 NH교실숲, NH초록세상 등 ESG 사회 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이처럼 전북농협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이란 타이틀에 걸맞게 사회 공헌 사업을 다방면으로 실천한다. 전북 내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전북농협이 있기에 다가올 미래는 밝은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든다.

친환경 녹색 교육 공간을 제공하는 NH교실숲 만들기 사업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 따뜻해집니다

전국 2979호(경북 146호)

김범준 하나은행 안동지점 팀장
"아동과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아너 가입을 결심했습니다. 저의 가입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임계점이 되길 기원합니다."

전국 2994호(경남 149호)

박금자 한국등공예연구회 회장
"삶의 여정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은 나눔입니다."

전국 2995호(경남 150호)

故 이주찬 울산과학기술원(UNIST) 졸업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역사회에 환원합니다."

전국 2997호 (충북 70호)

송재승 의료법인 인화재단 한국병원 병원장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2998호(서울 363호)

강대현 (사)한국청소년육성회 강남지구회 회장
"나의 따뜻함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전국 2999호(부산 285호)

이창형 좋은의료기 대표
"나눔은 사랑·사랑·사랑."

전국 3000호(부산 287호)

노찬용 영산대학교 이사장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국 3001호(부산 289호)

이경신 (주)세강 대표이사
"인생 최고의 가치는 나눔(봉사)입니다."

전국 3002호(부산 290호)

이성근 이샘병원 병원장
"나눔은 세상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역할입니다."

전국 3003호(부산 291호)

최숙현 신한스틸(주) 대표이사
"나눔은 호흡처럼 하는 것입니다."

전국 3004호(부산 292호)

성진욱 연산당당한방병원 병원장
"나눔은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국 3005호(부산 293호)

임태분 천광산업 대표
"나눔은 항상 즐겁고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따뜻한 손길로 정성을 담아 마음을 전할 때 기쁨은 배가됩니다."

전국 3006호(부산 294호)

윤미영 (주)썬시티 대표이사
"아름다운 나눔 실천이 더 나은 세상과 밝은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전국 3007호(부산 295호)

강남욱 미래병원 병원장
"나눔은 사랑입니다."

전국 3009호(부산 297호)

이명종 노블레스성형외과 대표원장
"나눔! 남을 도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전국 3010호(부산 298호)

한정수 (주)희천 회장
"나눔은 이 사회에서 배려받은 도움에 대한 나만의 답신입니다."

전국 3011호(부산 299호)

김나미 (주)희천 대표이사
"나눔은 이 세상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국 3012호(부산 300호)

김대식 경남정보대학교 총장
"나눔은 사랑과 행복입니다."

전국 3013호(부산 286호)

익명
"가진 자가 베푸는 사회, 웃음꽃이 피는 사회."

전국 3014호 (충북 72호)

변상천 (주)오션ENG (前충북도청 건축문화과장) 부사장 "나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3016호 (경북 147호)

김정화 삼성초대교회 담임목사
"어려운 환경에 놓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손길이 갔으면 합니다."

전국 3017호(대전 102호)

신명근 신명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나눔은 함께하는 행복한 봉사입니다."

전국 3020호(광주 147호)

익명
"나눔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전국 3021호(광주 148호)

김명기 국제건설(주) 대표이사
"저의 아너 가입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큰 기쁨이 되고 행복한 기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곽동신 한미반도체 대표이사 부회장, 윤영석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서정윤(개인)

중앙회

신한금융그룹,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지원 협약식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이 사랑의열매 및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사장 남세도)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1월 22일 협약식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수와 이용 시간은 증가했지만,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센터의 운영 부담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이용 아동 수에 따라 지원을 받아 운영하지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엔 부족한 실정이다. 사랑의열매와 신한금융그룹,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 지역아동센터의 냉난방기 이용 부담을 낮추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신한금융그룹은 3년간 총 9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아동센터 약 369개소의 노후한 냉난방기를 고효율(1등급) 가전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신한금융그룹 안준식 브랜드홍보부문장은 "아이들이 한파와 폭염으로 힘든 계절을 보내지 않기를 바란다"며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기부 배지 제작

사랑의열매가 카카오(대표 홍은택)의 임팩트 커머스 '카카오메이커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지난해에 이어 카카오프렌즈 인기 캐릭터와 사랑의열매를 활용한 배지를 제작해 한정 수량으로 판매를 시작한 것. 기부 배지로 제작할 캐릭터는 국민이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제품 디자인 투표를 실시해 선정했다. 카카오프렌즈 및 니니즈 캐릭터 배지 디자인 6종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디자인 1종만이 제품으로 탄생했으며, 완성 배지는 12월 초부터 카카오메이커스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 사랑의열매는 이번 배지 판매 협업에서 카카오메이커스의 '제가버치'와 연계한 의미 있는 나눔을 준비하고 있다. 제가버치는 우리 농·축·수산물의 새로운 판로를 열어 판매를 늘리고 폐기 비용은 줄이고자 카카오메이커스가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사랑의열매는 제가버치를 통해 배지 수익금으로 강원도 철원의 공급 과잉 쌀을 구입해 조손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

신입 아너 회원 환영회 및 아카데미 출범식 진행

지난 11월 3일 서울 사랑의열매가 2021~2022년에 가입한 신입 아너 회원을 대상으로 환영회를 열었다. 이날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임원진과 신입 회원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아너 회원 2명(NH투자증권 서재영 상무, 배우 김나운)이 아카데미를 열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나누었다.

서울교통공사·NH농협은행 서울강서사업부, 성금 전달

서울교통공사(대표 김상범)와 NH농협은행 서울강서사업부(대표 권준학, 이하 농협은행)가 공동으로 농촌 마을 지원을 위한 공익 기금 6,524만 1,476원을 서울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이번 기금은 1사 1촌 활성화 및 농촌 마을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교통공사 예금 평잔의 일정 비율을 농협은행이 자체 적립해 조성했다. 기금은 농촌 마을 발전과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부산

복지 현안 지원 사업비 2억 3,400여만 원 배분

지난 11월 9일 부산 사랑의열매가 2022년도 복지 현안 지원 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 부산 지역 사회복지 기관 15개소에 전달한 사업비는 장애인·노인·아동·자립 준비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전달식과 더불어 사업 수행의 전문성 강화와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 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주)대성문, 1억 원 상당 식료품 기탁

주거용 건물 건설 회사 (주)대성문(사장 채창호)이 쌀과 올리브 오일 등 1억 원 상당의 식료품 4,135개를 기탁했다. 매년 쌀 나눔 및 봉사 단체 후원을 이어오던 (주)대성문은 더 많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부산 사랑의열매를 찾았다. 기탁한 식료품은 부산 16개 구·군 푸드마켓을 통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채창호 사장은 "건강한 식료품으로 온정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지역아동센터 교육·문화 활동 후원

경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용림)에서 대구 사랑의열매에 성금 2,550만 원을 기탁했다. 임직원이 급여의 일정액을 모아 마련한 이번 성금은 중구 및 남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교육·문화 활동 지원비로 전달했다. 김용림 병원장은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문화를 체험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기를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암동 함지공원 먹골촌, 착한골목 지정

대구시 북구 구암동 함지공원 먹골촌이 대구 사랑의열매 착한골목으로 지정됐다. 착한골목은 착한가게에 가입한 상가가 대다수인 상가 골목을 말한다. 함지공원 먹골촌은 2018년 7월 부지갱이 삼겹살이 착한가게 1호점으로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20개소가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함지공원 먹골촌 상가번영회 장용기 회장은 "이웃과 함께하는 상가번영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인천

삼부건설, 저소득 가정에 연탄 9,900장 전달

삼부건설(대표이사 선우정자)이 연말을 맞아 연탄 9,900장을 인천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삼부건설은 매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기부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올해는 저소득 주민 11가구에 연탄 900장씩 지원했다. 선우정자 대표이사는 "우리의 작은 나눔이 주위로 번져나가 어두운 곳에 계신 분들에게 빛을 주는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재호·진광자 부부, 인천 첫 부부 나눔리더 가입

신강남시장 한재호 상인회장과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관련 회사 (주)어게인의 진광자 대표가 인천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두 사람의 가입으로 인천 사랑의열매에 첫 번째 부부 나눔리더가 탄생했다. 한재호 상인회장은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가입을 결심했다"고 말했으며, 진광자 대표는 "우리 이웃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광주

광주순환도로투자(주)·광주순환(주), 이웃 돕기 성금 기탁

광주순환도로투자(주)·광주순환(주)(대표이사 이영훈)가 광산구 관내 돌봄 이웃을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광주순환도로투자(주)·광주순환(주)는 소태·송암영업소를 관리·운영하는 회사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1억 5,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을 펼치고 있다. 이영훈 대표이사는 "ESG 경영 방침에 따라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광주지역협의회, 연탄·김치 나눔

지난 11월 14일 연말연시를 맞아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광주지역협의회(회장 최갑렬)가 연탄 및 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에는 최갑렬 회장, 임민자 여성분과위원회장, 광주지방검찰청 이수권 검사장, 이영남 차장검사, 정태원 형사1부장검사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1,000만 원 상당의 연탄과 6,000만 원 상당의 김치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했다.

대전

(주)휴비스, 사회 공헌 업무 협약 체결

첨단 레이저 장비 전문 기업 (주)휴비스(대표이사 김명진)가 대전 사랑의열매와 기업 사회 공헌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주)휴비스는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VISION SCAN)을 한 대 판매할 때마다 10만 원을 매치해 기부할 예정이다. 김명진 대표이사는 "좋은 기회에 사회 공헌 활동을 실천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대전어린이집, 아나바다 바자회 수익금 기부

서대전어린이집(원장 윤미영)이 원아 및 학부모와 함께 한 아나바다 시장 놀이 행사 수익금 64만 4,000원을 대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윤미영 원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데 의미를 두고 꾸준히 나눔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대전어린이집은 2020년 착한어린이집으로 가입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울산

생식본능 윤성훈 대표, 저소득 아동 위한 의료비 전달

화학 염지제를 사용하지 않는 곱창구이 전문점 생식본능의 윤성훈 대표가 울산 사랑의열매에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울산 지역 저소득 가정 아동의 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윤성훈 대표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의 의료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생식본능은 착한가게에 동참해 매월 나눔을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춘해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축제 수익금 나눔

춘해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학과장 서화정)가 울산 사랑의열매에 성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사회복지과 학생 36명이 9월에 열린 교내 축제 '창공제'에서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며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춘해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는 2018년부터 울산 사랑의열매를 통해 매년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

2022 나눔 유공자 포상식 개최

경기 사랑의열매가 지난 11월 8일 2022 나눔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당신이 사랑의열매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한 이번 행사는 적극적인 나눔 실천과 봉사 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인 5명과 9개 단체에 경기도지사 표창을, (주)중부일보에 경기 사랑의열매 회장상을 수여했다.

올릭스 주식회사, 착한일터 가입

올릭스 주식회사(대표이사 이동기)가 경기 사랑의열매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미래 신약 개발의 핵심인 RNA(RNAi)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병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는 올릭스 주식회사는 2020년부터 매년 연말 따뜻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으며, 누적 기부금은 2,300만 원에 달한다. 이동기 대표이사는 "한마음 한뜻으로 착한일터에 가입해준 직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경기북부

Y.BODY.GYM 조영진 대표, 나눔리더 가입

Y.BODY.GYM 조영진 대표가 100만 원을 기탁하며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와 착한가게에 동시 가입해 나눔에 앞장섰다. 이번 나눔은 의정부시 '100일간 사랑 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의 일환으로 성사됐으며, 성금은 의정부시 저소득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조영진 대표는 "이웃에게 작은 정성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청평양수발전소, 이웃사랑 실천

한국수력원자력 청평양수발전소(소장 김경민)가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800만 원 상당 쌀(20kg) 141포와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청평양수발전소는 매년 가평군의 저소득 주민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김경민 소장은 "추워진 날씨에 이웃의 정을 나누게 되어 보람차다"며 "진정성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강원

한국타이어춘천판매(주), 개점 45주년 기념 성금 전달

한국타이어춘천판매(주)(대표 임재홍)가 개점 45주년을 기념해 강원 사랑의열매에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한국타이어춘천판매(주)는 해마다 개점 기념일에 장학금을 전달해왔으며, 그동안 강원대와 지역 청소년, 저소득층 등에 총 10억여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임재홍 대표는 "코로나19로 성대한 행사는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2년 신규 기획 사업 찾아가는 전달식 진행

강원 사랑의열매가 평창군가족센터를 찾아 2022년 신규 기획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제1주제인 코로나19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함께마음을나누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2주제인 사회적 약자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평창군가족센터를 선정하고, 총 5,817만 원을 지원했다. 사업은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진행한다.

충북

갈기산농원식당, 영동군 200호 착한가게 가입

백숙 전문점 갈기산농원식당(대표 김운주)이 영동군 착한가게 200호점으로 가입했다. 김운주 대표는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착한가게 캠페인을 알게 됐다"며 "지역과 이웃을 위해 온정을 나누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영동군의 소상공인을 찾아 착한가게 캠페인 취지를 알리며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현대자동차(주), 시각장애인 맞춤형 전기차 기증

현대자동차(주)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점자 등의 편의 기능을 갖춘 자동차를 충북 사랑의열매에 기증했다. 2억 원 상당의 아이오닉5 전기차 3대는 충주시와 제천시, 보은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전달했다. 현대자동차(주)는 차량 기증과 함께 충북 도내 11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 무상점검 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충남

충청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나눔리더 가입으로 희망 전달

충청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도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자 충남 613호 나눔리더로 가입했다. 성금은 긴급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은 "도의회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가입 소감을 전했다.

2022년 하반기 기획 사업에 4억 9,800만 원 배분

충남 사랑의열매가 2022년 하반기 기획 사업에 4억 9,800만 원을 배분하고, 사업 수행 기관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기획 사업은 저소득 가정 아동의 학습 격차 해소, 취약 계층 취업 기반 형성을 위한 직업 재활,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정적 보호와 양육 환경 지원 세 가지 주제로 진행하며, 총 27개 기관이 참여한다.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지원 위한 업무 협약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도내 저소득 가정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 사랑의열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은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금 모금을 돕고, 전북 사랑의열매는 투명하게 기부금을 집행하기로 약속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상공회의소, 겨울맞이 사랑의 연탄 나눔

전주상공회의소가 전주 사랑의열매에 연탄 1만 장을 기탁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단 및 임직원 30여 명이 전주시 완산구 교동을 찾아 차상위 계층 및 홀몸 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직접 연탄을 나르며 온정을 전했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우리의 작은 정성이 이웃의 겨울을 따뜻하게 감싸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남

씨앗과사람들 박태훈 대표, 영광군에 1,000만 원 기부

양파와 파 품종 전문 종묘 회사 씨앗과사람들 박태훈 대표가 영광군에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영광 6호 아너인 박태훈 대표는 이번 기부로 아너 가입 성금 1억 원을 완납했다. 성금은 영광군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비로 쓸 예정이다. 박태훈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나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광주전남영업센터, 성금 400만 원 전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광주전남영업센터(센터장 김홍배)가 전남사랑의열매에 성금 4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목포시에 여성용품 지원 사업비로 2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장흥군과 담양군에 아동·노인 교통안전 지원 사업비로 각각 100만 원씩 전달했다. 김홍배 센터장은 "앞으로도 직원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하나은행 안동지점 김범준 팀장, 아너 가입으로 나눔 실천

지난 10월 19일 안동시청에서 경북 146호 아너로 가입한 하나은행 안동지점 김범준 팀장의 가입식을 진행했다. 가입식에는 김범준 팀장과 가족들, 권기창 안동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범준 팀장은 "대구·경북 최초의 금융인 아너 회원이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추후 아내와 초등학생 딸도 아너에 가입해 패밀리 아너로서 기부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2년 하반기 도·시·군 관계자 간담회 실시

경북 사랑의열매가 지난 11월 4일 경북도청에서 도·시·군 공동모금 관계자 40여 명과 경북 사랑의열매 정동의 사무처장 외 직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희망2023나눔캠페인 계획 발표 및 협력 방안 ●각 사업별 모금 현황 및 협력 방안 ●지역 복지 현안 및 배분 관련 협조 사항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남

한국등공예연구회 박금자 회장, 아너 회원 가입

국내 라탄 공예의 대가로 알려진 한국등공예연구회 박금자 회장이 경남 149호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입 성금은 하동군의 주거 취약 계층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2021년 경남 하동으로 이주해 갤러리를 오픈한 박 회장은 "하동에서 나눔의 뜻을 이루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익명의 나눔 천사,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성금 전달

익명의 기부자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경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해당 기부자는 2017년부터 코로나19 및 호우 피해, 2022년 산불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사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동일한 필체의 손 편지와 함께 성금을 보내오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성금은 약 5억 원에 달한다.

제주

재일제주인 어르신께 도민 성금 전달

제주 사랑의열매가 일본 현지를 방문해 '재일제주인 돕기 특별 모금'으로 마련한 도민의 정성을 전달했다. 재일제주인은 과거 남다른 애향심으로 제주 곳곳에 마을회관 건립, 전기·수도 가설, 도로포장, 감귤 묘목 등을 지원했으나, 현재 90세를 웃도는 고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제주 사랑의열매는 매년 특별 모금을 통해 재일제주인에게 위로금을 전하고 있다.

제주 아너 소사이어티, 행복한 산타 봉사 활동

제주 아너 소사이어티가 지난 11월 17일 제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와 함께 '행복한 산타' 봉사 활동을 펼쳤다. 행복한 산타는 아너 브랜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아너 기부금을 통해 매년 11월 봉사 활동과 함께 진행한다. 올해는 홀몸 어르신 300세대에 돈육 5kg씩을 지원했으며, 아너 회원들이 직접 찾아가 안부를 물으며 전달했다.

세종

홀몸 어르신 위한 AI 돌봄 인형 지원 사업비 배분

세종 사랑의열매가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에 홀몸 어르신의 안전과 정서적 지원을 위한 AI 돌봄 인형 지원 사업 배분금 4,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지역 내 홀몸 어르신 50여 명에게 AI 돌봄 인형을 지원해 식사·약 복용 알림, 센서 감지를 통한 안전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비전세미콘(주), 이웃사랑 백미 1,000kg 기탁

반도체 제조 장비 개발 기업 비전세미콘(주)(대표 윤통섭)가 세종사랑의열매에 백미 1,000kg을 기탁했다. 백미는 세종시 양로 시설 및 무료 급식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했다. 윤통섭 대표이사는 "대전에서 세종시로 사옥을 옮긴 후 이곳에서도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당신의 눈썰미는 몇 점?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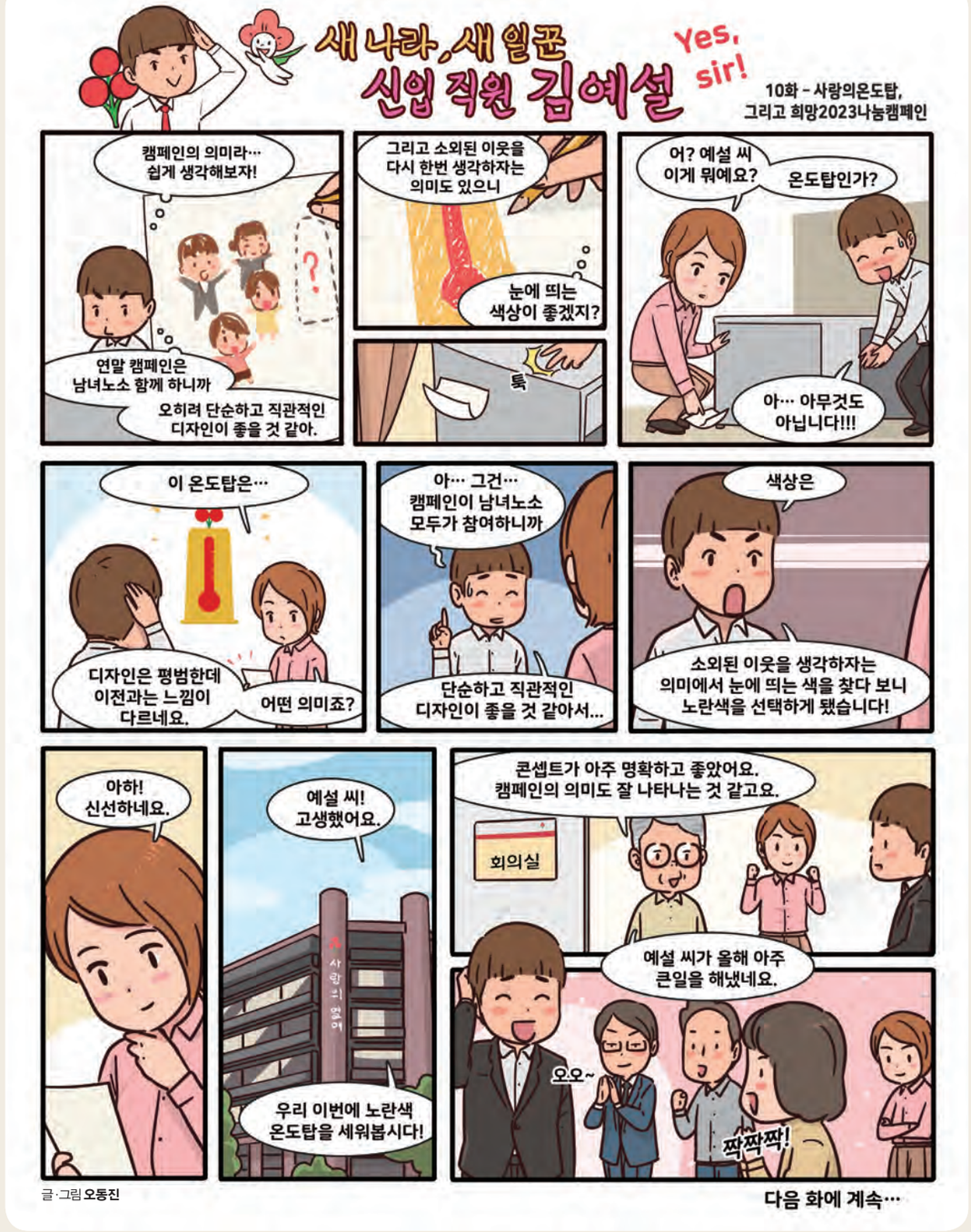
모두 행복한 연말을 보내길

2022년의 마지막 달로 접어들었다. 누군가는 12월이면 화려한 불빛과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캐럴에 설렘을 느끼지만, 누군가에게 12월은 차가운 칼바람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시기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지금, 사랑의열매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참여해 '소중한 진심'을 전하면 어떨까. 나눔으로 만든 온기가 곳곳에 퍼져 모두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길 바라본다.

다른 곳은 총 다섯 곳,
모두 찾은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일자
매월 20일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글·그림 **오동진**

다음 화에 계속…